

# 러시아의 해외투자 동향 및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

2011. 6.

# 목 차

<b>Executive Summary</b> .....	1
<b>1. 러시아의 부상</b>	
가. 러시아 경제의 성장 .....	5
나. 글로벌 투자자로서의 러시아 .....	7
<b>2.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b>	
가.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	10
(1) 해외직접투자 실적 .....	10
(2)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자원 .....	14
나.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특성 .....	19
<b>3. 러시아의 對韓 투자</b>	
가. 러시아의 對韓 투자 동향 .....	23
나. 러시아의 對韓 투자 특성 .....	25
<b>4. 러시아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b>	
가. 투자유치 확대전략 .....	27
(1) 러시아의 산업발전정책에 부합하는 분야 .....	27
(2) 에너지 다운스트림 분야 .....	28
(3) 농업 및 운송 분야 .....	31
(4) 부동산 개발 및 관광 분야 .....	32
(5) 기술개발 프로젝트 확대 .....	32
나. 장기적 관점의 투자협력 기반조성 .....	33
(1) 러시아데스크 설치 .....	33
(2) 다방면의 교류기반 확대 .....	34

**【참고자료】 러시아의 20대 다국적기업**

## Executive Summary

### 1. 러시아의 해외투자동향

- ▶ 러시아는 2010년 말 기준으로 중국, 일본에 이은 제 3위의 외환보유국으로, 최근 계속되는 에너지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풍부해진 자본력을 바탕으로 활발한 해외직접투자를 실시
- ▶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2001년 25억 달러에서 2008년 560억 달러로 20배 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도 460억 달러의 투자를 기록하며 세계 7위의 투자대국으로 성장(flow 기준)
- ▶ 2000년대 중반 이후 경제의 폭발적 성장과 함께 기존 CIS 중심의 투자에서 유럽과 북미지역의 증가세를 보이며 전통적인 투자패턴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
- ▶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서방 선진국 투자의 경우 미국과 캐나다와 같은 북미 국가들은 시장 확대를 위한 기업의 인수 및 에너지 다운스트림 분야에, 독일의 경우 자원산업과 더불어 제조업 부문의 M&A가 활발하게 진행 중

####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특성의 변화>

투자산업	석유, 가스, 철강 등 자원관련	⇒	자원, 통신, 제조, 금융 등 다변화
투자대상국	CIS국가	⇒	CIS국가 + 유럽, 미국, 아프리카
투자형태	자원분야의 greenfield 투자	⇒	M&A를 통한 신규사업/시장 진입

자료: 각종 보도자료 종합 작성

- ▶ 2008년 320억 달러의 규모로 출범한 러시아의 국부펀드는 2011년 4월 말 기준 918억 달러로 3년 동안 3배 가까이 오르며 세계 11위 규모로 성장하고 있으나, 대부분 미국 및 유럽과 같은 선진국의 안정적 자산에 투자되고 있음

## 2. 러시아의 對韓투자 현황

- ▶ 1992년 150만 달러로 출발한 러시아의 對韓 투자규모는 2010년 5백만 달러로, 18년 동안 3.3배의 증가율을 보이는데 그쳐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임
- ▶ 지난해 1년간 러시아의 對韓 직접투자 금액은 505만 달러로 한화로 환산했을 때 57억 원에 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2010년 한국의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130억 달러의 0.039%에 불과
- ▶ 2009년 기준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460억 달러 중 한국에 투자한 금액은 142만 달러로, 러시아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0.0031%만이 한국으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나 투자교류 자체가 활성화 되어있지 않음을 드러냄
- ▶ 이는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큰 흐름을 주도하는 글로벌기업이나 국부펀드 등 대형 자본의 본격적인 투자유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며, 향후 이들 자금의 투자유치를 위한 양국 간 기반조성이 시급히 요구됨

### <주요 對韓 투자국 현황>

(단위: 천 달러)

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전체	11,565,528	11,247,441	10,515,625	11,711,804	11,484,139	13,070,195
일본	1,880,795	2,111,046	990,290	1,423,941	1,934,253	2,083,233
미국	2,689,764	1,710,925	2,329,120	1,328,190	1,486,417	1,974,404
네덜란드	1,140,928	791,717	1,965,056	1,228,067	1,897,667	1,184,887
영국	2,316,458	706,556	363,853	1,232,792	1,952,895	648,956
중국	68,414	37,887	384,131	335,481	159,607	414,177
독일	704,812	483,907	438,902	685,418	569,813	268,260
프랑스	85,179	1,173,434	439,300	537,889	109,551	159,919
러시아 (비중)	2,506 <b>0.022%</b>	2,424 <b>0.022%</b>	2,526 <b>0.024%</b>	16,001 <b>0.137%</b>	1,426 <b>0.012%</b>	5,054 <b>0.039%</b>

자료: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통계(신고기준)

### 3. 러시아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 (1) 투자유치 확대전략

- ▶ 러시아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안보적 측면에서도 향후 큰 비중을 두어야 하는 중요한 파트너이며,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국 간의 지속적 교류를 통한 관계기반 구축이 선결되어야 함
- ▶ 러시아의 자본투자유치와 러시아 시장진출 연계를 통한 한-러 투자협력 파트너십 조성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돌파구 마련 필요

#### <부문별 러시아 투자유치 전략>

부문	투자유치 전략
러시아의 산업발전정책과 부합되는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제조업을 비롯해 자동차, 건설, 통신서비스, IT, 재생에너지 등 러시아의 산업육성정책에 부합되는 국내 투자대상기업 발굴</li> <li>• 한국의 중대형 기업 M&amp;A 참여 기회를 제안</li> </ul>
에너지 다운스트림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의 원유 및 천연가스의 기업의 다운스트림 분야 투자유치</li> <li>• 에너지 운송과 관련한 조선업체, 국내 에너지공급설비업체, 연료저장 탱크터미널(물류기지) 및 금속철강 등 관련업체의 지분참여 및 설비투자 제안</li> </ul>
농업 및 운송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선진 농업기술, 관리기법, 기업가정신과 러시아의 자본 및 토지가 결합된 역 round-trip형 투자 유치</li> <li>• 극동시베리아-동북아 지역 운송-물류 합작투자</li> </ul>
부동산 개발 및 관광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 개인 부동산 사업가들의 해외 관광산업 투자 유치</li> <li>• 부산 및 제주도 휴양단지 등 관광시설 적극 개발 및 홍보</li> </ul>
기술개발 프로젝트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과학, 나노, 원자력, 우주항공, 에너지, IT 등 러시아의 앞선 원천 기술과 한국의 상용화 기술을 결합한 상품화 프로젝트 추진</li> <li>• 제 3국의 동반진출 방안도 모색 가능</li> </ul>

- ▶ 러시아는 막대한 자본력을 보유한 투자유치 대상국으로서의 이점과 동시에, 높은 구매력과 지역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 투자 잠재력 또한 높은 국가로 해외직접 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를 아우르는 거시적인 차원의 접근이 필요

## (2) 장기적 관점의 투자협력 기반조성

### ① 러시아데스크 설치

- ▶ 러시아 내 잠재적인 한국투자자를 발굴하고 對러시아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관한 정확한 투자정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각종 투자업무 지원을 담당할 구심점이 필요
- ▶ 러시아데스크는 양국 간 투자유치를 원하는 기업과 투자대상을 찾고 있는 기업 간에 정보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실제 투자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자의 장(場)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수행
- ▶ 지역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및 산업별 투자전문가와 함께 러시아 자본유치가 유망한 분야를 발굴함과 동시에, 한-러 투자포럼(가칭) 및 양국 간 한-러 투자사절단 정기방문 등 경제협력 관련 회합의 정례화 추진

### ② 다방면의 교류기반 확대

- ▶ 러시아는 현재의 시장이 아닌 미래의 시장으로서의 의미가 매우 크며,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교류 확대와 상호간 투자를 통한 관계구축이 매우 중요
- ▶ 국가주도의 경제 특성상 정부차원의 교류기반조성이 매우 중요하며, 투자대상으로서의 정보 제공과 나아가 전략적 동반자로서 지속적인 교류 기반을 조성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1. 러시아의 부상

## 가. 러시아 경제의 성장

- 1991년 12월 소련의 붕괴로 급격한 체제전환에 직면한 러시아는 이듬해인 92년 2,500%의 인플레이션과 -14.5%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며 경기침체와 함께 사회 전반의 혼란을 겪음
  - 이후 90년대 중반까지 계속된 경제 침체에, 국제 유가하락으로 수출소득 및 세수 감소에 직면하여 급기야 1998년 8월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며 최악의 경제위기에 빠짐
  - 당시 1달러당 6루블 수준이던 對달러 환율이 20루블 수준으로 떨어지고, 소비자물가가 84.4% 폭등했으며, 대외적으로도 국가신용등급이 B-(투자부적격)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러시아의 경제회복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음

<러시아의 주요 경제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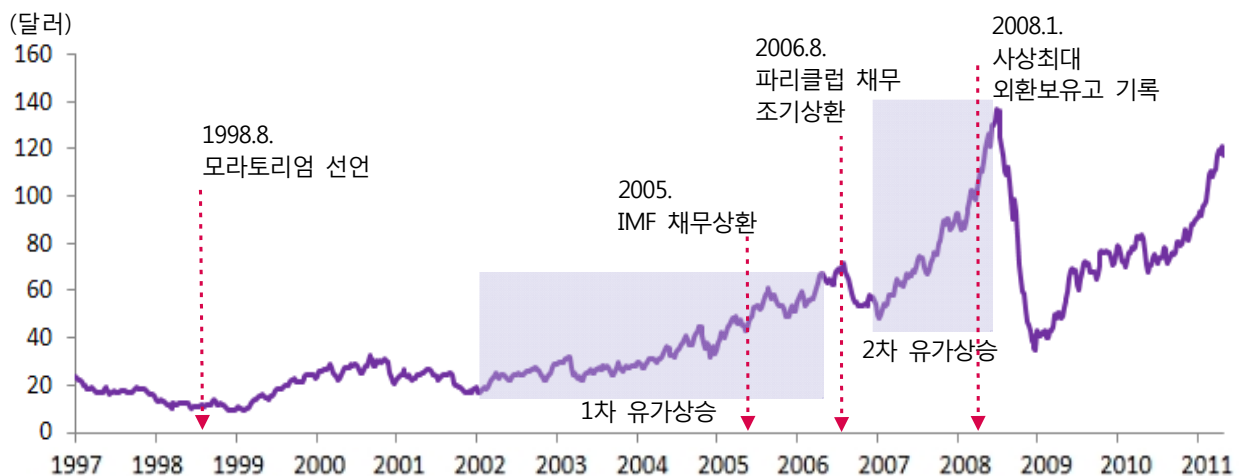
연도	1992년	1994년	1998년	2002년	2006년	2010년
GDP(십억달러)	85.6	276.9	271.0	345.1	989.9	1,465.1
GDP성장률(%)	-14.5	-12.7	-5.3	4.7	8.2	4.0
1인당 GDP(달러)	575	1,865	1,853	2,377	6,962	10,437
물가상승률(%)	2,508.8	215.1	84.4	15.1	9.0	8.8
수출(십억달러)	n/a	67.4	74.4	107.3	304.5	427.8
수입(십억달러)	n/a	50.5	58	61.0	163.9	260.0
실업률(%)	n/a	n/a	13.2	9.0	6.9	7.2
대외부채(% <sup>1)</sup> )	n/a	42.5	50.4	27.7	4.4	2.2
대외부채(십억달러)	n/a	118.5	136.5	95.7	43.2	32.2
외환보유고(십억달러)	n/a	4.0	12.2	47.8	303.7	479.4

주: 1) GDP 대비 비중

자료: 러시아통계청, 러시아중앙은행, 러시아재무부, IMF 자료 종합

- 그러나 99년 이후 국제유가의 회복으로 인해 회생의 기회를 맞이한 러시아는 2000년대 들어 연평균 6~7%대의 회복세를 이어나갔으며, 2000년대 중반 지속적인 유가상승을 기반으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기록
  - 이후 2002년 3,451억 달러였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2010년에는 1조 4,651억 달러로 4배가 넘는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오일머니의 유입으로 외환보유고도 같은 기간 478억 달러에서 4,794억 달러로 10배나 증가
  -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 2005년 IMF 차관 33억 달러와 파리클럽 채무 150억 달러를 상환하였고, 2006년 8월 파리클럽 잔여 채무 237억 달러를 조기 상환하였으며, 국가신용등급 또한 BBB+로 급상승

<국제유가 추이와 러시아 경제>



주: 배럴당 가격

자료: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EIA) 및 각종 언론보도자료 종합 작성

- 최근까지도 러시아는 정치적 안정 및 오일머니 유입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기반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유가의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제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높게 평가되고 있음
  -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2009년의 경제성장률은 일시적으로 마이너스를 기



록하였으나 2010년부터 다시 플러스로 전환되었으며, 이후 2015년까지 평균 4% 이상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러시아 경제 성장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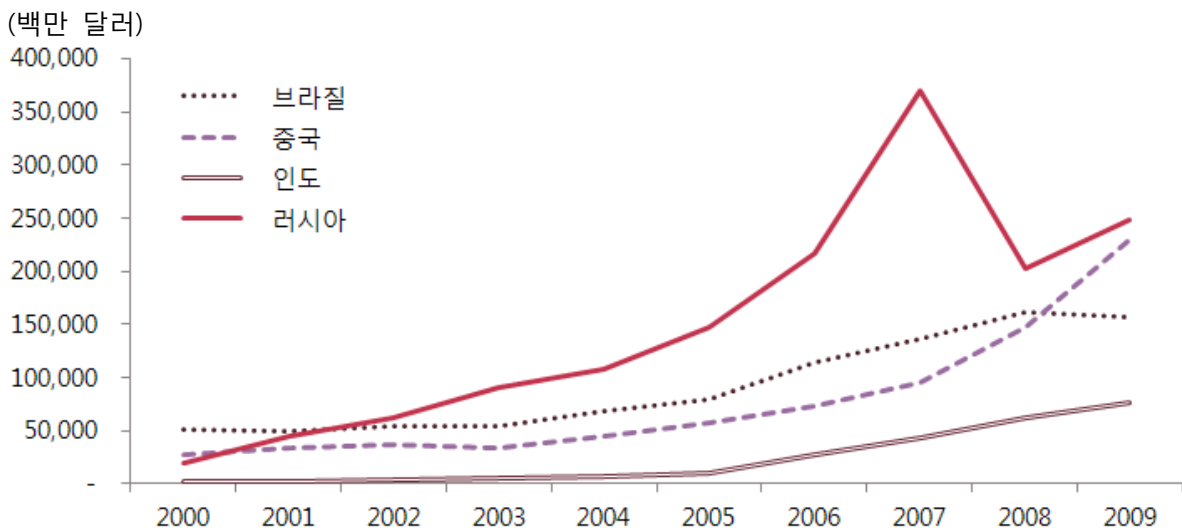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경제성장률	5.2	-7.8	4.0	4.3	4.5	4.4	4.3	4.2

주: 2011-2015년의 각 수치는 Economist Intelligence Unit 추정치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 나. 글로벌 투자자로서의 러시아

□ BRICs 4개국 중 자원관련 산업의 비중이 높은 러시아는 가장 높은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을 제치고 제1의 해외직접투자 실적을 기록

<BRICs 국가들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주: Stock 기준  
 자료: UNCTADstat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

- BRICs 4개국 중 브라질은 에너지, 광업, 서비스 부문이, 인도는 제약, 농화학, 소프트웨어, IT, 통신 부문이, 러시아는 석유, 가스, 금속 등 자원부문이 발달한 반면 중국은 제조업, 자원, 서비스, IT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고른 발달을 보임

- 에너지부문에 대한 경제의존비중이 높은 러시아의 경우, 석유 및 가스 등 에너지 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경제발전 및 외환의 유입으로 해외투자여력은 늘어났으나, 제조업 등 기초산업기반의 부실로 내수투자처가 부족한 점이 해외직접투자 비중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 중국의 경우 러시아보다 경제발전규모가 훨씬 크에도 불구하고 산업 전반의 고른 발달로 내수 투자처가 풍부하기 때문에 해외직접투자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더딤
- 또한 국내 인플레이션을 우려하여 잉여 자본의 해외직접투자를 장려하는 러시아 정부의 정책도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성장세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러시아의 석유 및 가스 수출현황>

연도	원유(Crude Oil)		석유제품(Oil Products)		천연가스(Natural Gas)	
	수출량 (백만 톤)	수출액 (백만 달러)	수출량 (백만 톤)	수출액 (백만 달러)	수출량 (백만 톤)	수출액 (백만 달러)
2000년	144.4	25,271.9	62.6	10,918.8	193.9	16,644.1
2001년	164.5	24,990.3	63.3	9,374.5	180.9	17,770.0
2002년	189.5	29,113.1	75.5	11,253.2	185.5	15,897.3
2003년	228.0	39,679.0	77.7	14,060.0	189.4	19,980.9
2004년	260.3	59,044.8	82.4	19,269.1	200.4	21,853.2
2005년	252.5	83,438.0	97.1	33,806.5	209.2	31,670.5
2006년	248.4	102,282.9	103.5	44,671.7	202.8	43,806.2
2007년	258.6	121,502.8	112.3	52,227.6	191.9	44,837.4
2008년	243.1	161,147.0	118.1	79,885.6	195.4	69,107.1
2009년	247.5	100,593.2	124.5	48,144.9	168.4	41,971.4
2010년	250.7	135,799.3	133.2	70,471.1	177.8	47,739.3

주: 2010년의 경우 러시아연방-벨로루시-카자흐스탄 간의 관세동맹(2010.1.1.발효)이 적용된 수치  
 자료: 러시아중앙은행

- 러시아는 석유 및 천연가스의 지속적인 수출호조에 따라 정부재정 수입도 대폭 늘어나 내수 활성화를 기반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유가의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제투자 및 자원분야에 있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00년 이후 에너지·자원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유입된 오일머니는 러시아 연방정부의 재정 구조 안정에도 기여하였으며, 2005년과 2006년에는 GDP대비 7%대의 높은 흑자를 거두었고, 모라토리엄 선언 후 폭등했던 정부부채의 수치도 10% 미만대로 안정화시키는데 성공함

## &lt;러시아 연방정부의 재정 현황&gt;

(단위: %)

연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세입	20.3	19.5	20.1	23.7	23.4	23.6	22.3	18.8	18.7
세출	19	17.8	15.8	16.3	16	18.1	18.2	24.7	22.7
흑자비율	1.4	1.7	4.4	7.5	7.4	5.4	4.1	-5.9	-4.1
정부부채	42.1	31.7	23.2	14.2	9.0	7.2	6.5	8.3	9.3

주: 각 수치는 GDP 대비 비중

자료: 러시아통계청, 러시아중앙은행, 러시아재무부 자료 종합

## 2.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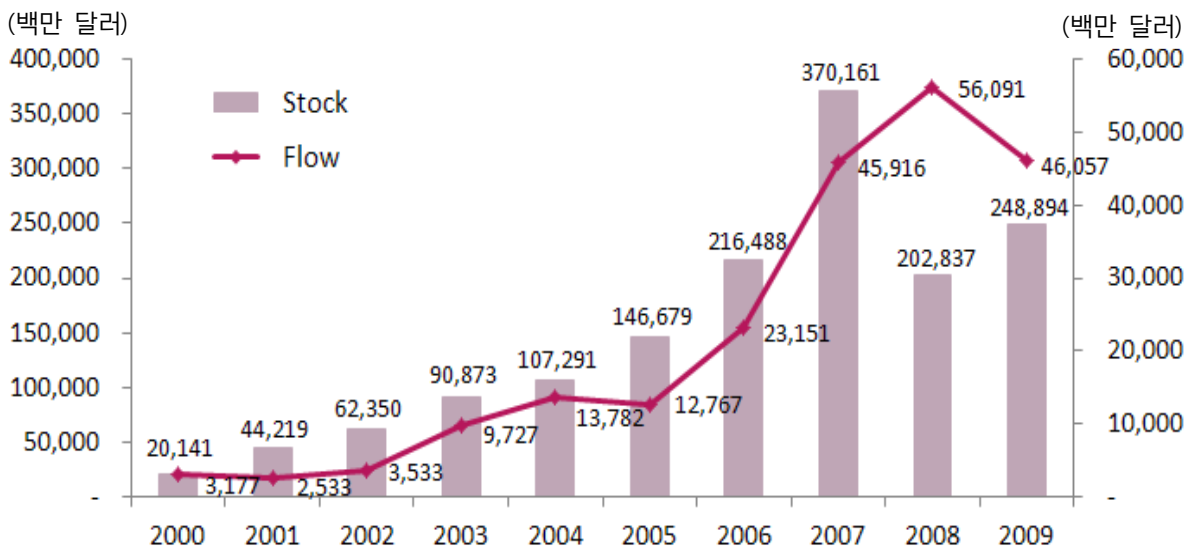
### 가.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 (1) 해외직접투자 실적

□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를 견인하는 에너지·자원기반 글로벌기업들은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힘입어 2000년대 중반부터 막대한 자금의 유입을 통해 잉여자금의 적극적인 해외투자에 나섬

- Flow 기준으로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금액은 2005년 128억, 2006년 232억, 2007년 459억 달러로, 국제유가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2005~2007년까지 3년간 증가율이 매우 가파르게 상승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실적>



자료: UNCTADstat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

- 러시아의 경우 기업들의 해외투자 실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실제 투자금액은 공식 통계자료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
- 공식집계에서 확인되지 않는 개인 차원의 해외 부동산 투자, 민간 주식펀드들

의 해외투자는 물론, 러시아 글로벌 기업들도 공식 해외직접투자 외에 조세회피국을 활용한 역외투자(round-tripping)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자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 투자금액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

<러시아 기업의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실적>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3분기)	합계
	전 세계	45,211	53,704	43,305	33,179	175,399
1	키프로스	14,630	8,879	15,423	11,723	50,655
2	네덜란드	12,501	4,685	3,377	4,517	25,080
3	미국	974	7,265	1,634	865	10,738
4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1,425	3,822	2,308	2,248	9,803
5	영국	2,454	3,886	2,016	984	9,340
6	캐나다	181	6,723	20	49	6,973
7	스위스	1,404	2,426	1,806	907	6,543
8	버뮤다	2,689	1,305	726	981	5,701
9	독일	674	1,860	1,488	1,362	5,384
10	룩셈부르크	497	2,722	1,213	916	5,348
11	지브롤터	886	1,311	2,101	-995	3,303
12	벨로루시	765	619	881	997	3,262
	∴					
34	인도	13	401	2	-1	415
	∴					
48	베트남	6	0	41	108	155
	∴					
53	중국	54	25	22	19	120
	∴					
78	홍콩	0	0	3	25	28
79	폴란드	28	-50	13	34	25
<b>80</b>	<b>한국</b>	<b>11</b>	<b>6</b>	<b>-1</b>	<b>7</b>	<b>23</b>
81	일본	19	5	-2	0	22
82	싱가포르	0	0	0	19	19

주: 비금융기업의 국제수지자료, inflows minus outflows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

- 최근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는 CIS를 비롯하여 유럽과 미국 등 서구 선진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CIS 역외국가 중 키프로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버뮤다, 지브롤터 등 조세회피국에 대한 직접투자 실적이 높음
  - 러시아의 대형 자본들은 이들 지역의 낮은 세금 제도를 이용하여 조세회피국 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후 해외직접투자 방식으로 자금을 이전하여 운영 및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네덜란드의 경우도 러시아 최대 에너지기업인 Gazprom의 금융서비스 관련 계열회사가 설립되어 있어 러시아에서 에너지 산업으로 자금을 되돌리는 창구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됨
- 러시아의 주요 해외직접투자 대상 중 상위 10개국을 살펴보면 조세회피국을 제외하고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과 같은 북미지역 및 서유럽의 선진국들이 실질적 투자대상국으로 꼽힘
  - 러시아의 경우 풍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해외선진기업의 공격적인 인수를 통해 시장 및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전략적 자산추구형의 해외직접투자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원이 풍부하고 유통망 및 산업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 이들 지역에서 러시아 전체 M&A의 85%가 성사
- 서방선진국 투자의 경우 시장 확대를 위한 자원기업(석유, 가스, 금속 등)의 인수 및 다운스트림 분야 진출과 더불어 제조업 부문의 M&A도 활발하게 진행
  - Gazprom은 2009년 미국 자회사인 Gazprom Marketing & Trading USA를 통해 미국 전역에 일일 3억 5천 입방피트 공급이 가능한 중앙 가스공급설비업체를 인수
  - 러시아 금속/철강 전문기업인 Evraz는 2007년 미국의 Oregon Steel Mills를 23

억 달러에, 캐나다의 철강회사인 IPSCO를 29억 달러에 인수함으로써 석유·가스 운송용 강관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북미 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의 거점을 확보

- 러시아 최대 철강회사인 Severstal은 2008년 미국의 중견 철강업체인 Esmark의 지분 100%를 12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하였으며, 2010년 영국의 광산업체인 Crew Gold Corporation의 주식 7백만 주 매입 후 2011년 1월 잔여분 6.62%를 추가 매입함으로써 100%의 지분을 모두 확보

□ 특히 러시아가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독일은 제조업 등 자원 외 분야 기업 인수가 활발

- 2009년 러시아 국영은행 Sberbank와 자동차조립업체 Gaz는 캐나다 자동차 부품회사 Magna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독일에 위치한 GM의 유럽 자회사 Opel의 지분 55% 인수에 성공함으로써, 단번에 러시아 내수시장 및 유럽시장에서 신속한 입지를 확보
- 러시아 정부는 경쟁력 열세로 자국시장 점유율 4.6%에 그치고 있는 Gaz를 지원하여 GM 소형차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Opel을 인수하게 함으로써 자동차 산업을 집중 육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기반을 확보
- 2009년 6월 초 파산신청을 한 독일의 Wadan 조선소도 독일정부와 러시아의 전 에너지장관인 Igor Yusofov와 그의 아들에 의해 인수가 확정되었으며, LNG 운송선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Wadan 조선소 인수를 통해 천연가스를 수출을 위한 운송 인프라를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
- 이 외에도 러시아 복합기업인 BasEl이 독일의 건설업체인 Hochtief의 지분을 10% 인수, 러시아 사업가 Rustam Aksenenko가 최근 파산을 신청한 명품패션 기업 Escada의 지분 20%를 인수하는 등 러시아의 비자원부문 독일 투자가 계속되고 있음

- 이에 반해 아시아 지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으로, 주요 아시아국가에 대한 2007~2010년 3분기까지의 누적 투자금액은 인도 4억 달러, 베트남 1억 5천만 달러, 중국 1억 2천만 달러, 홍콩 2천 8백만 달러, 한국 2천 3백만 달러, 일본 2천 2백만 달러, 싱가포르 1억 9천만 달러 등으로 나타남
  - 2008년 초 Evraz는 중국 철강업체 더룽(德龍)홀딩스의 지분 51%를 14억 9,000만 달러에 인수했으며,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인 Rosneft는 중국의 창고업 분야에 20억 달러를, 석탄회사 Russkiy Ugol은 베트남에 전기야금공장과 이에 필요한 전력설비를 위해 15억 달러를 각각 신설투자(greenfield investment)함
  - 2008~2010년까지 러시아의 글로벌 기업들은 캄보디아, 중국, 홍콩, 인도, 몽고, 대만 등의 국가에 이동통신서비스 및 컴퓨터, 배터리, 터빈 제조 등 IT분야와 제조업 관련 기업들을 일부 인수한 것으로 알려짐(UNU-MERIT, 2011)

## (2)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재원(財源)

### 글로벌기업

- 러시아의 대형 기업들은 1990년 개혁개방 이후 사회주의 하의 설비를 통합해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과정에서 탄생하였으며, 초기 대부분의 주식을 정부기관이 소유
  - 특히 1995~1996년에 러시아 산업의 핵심을 이루는 자원 및 에너지 기업은 물론 철강회사, 군수공장 및 선박회사 등 굵직한 국영 기업들을 당시 옐친 대통령이 측근의 유력 정치인들에게 헐값에 매각하며 신흥재벌 올리가르히(Oligarch)가 등장
  - 그러나 1998년 푸틴이 정권을 잡으며 국가 자본주의가 다시 등장하였고, 대표적인 7개 민간 대기업 중 LUKOIL 등 일부를 제외하고 재국유화 실시되었으



며, Gazprom을 비롯하여 국유화된 국영기업의 경영진에 푸틴 대통령의 측근들이 대거 포진

- 2008년 푸틴정권시절 Gazprom의 회장을 지내기도 했던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러시아 경제 현대화를 최우선의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각종 사회개혁, 부패와의 전쟁 및 기존 국영화된 기업의 재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에도 러시아 글로벌 국영기업과 민간대기업의 대부분을 소수의 정치 관료들이 장악하고 있어 실제 이들 기업의 해외투자 및 각종 정책이 국가 차원에서 결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 러시아의 글로벌기업에는 에너지·자원 관련 기업의 비중이 높고 일반 제조업은 거의 없으며, 에너지·자원 기업이 러시아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

- 이들 기업들은 2000년대 들어 지속된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특별한 전략 없이도 높은 성장을 계속하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었으며, 에너지·자원기업의 수익에 기반 하여 러시아 경제가 2008년까지 급격한 성장이 가능했음
- 러시아의 글로벌 기업들은 표면적으로는 민간기업으로 보이지만 대주주와 지분관계를 역추적 해 보면 대부분 중앙정부나 정부유력인사의 영향력에 지배받는 경우가 대다수임
- 투자의 결정에 있어서도 경제적 이윤추구와 함께 러시아의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러시아 글로벌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가, 산업차원의 이해관계와 협의가 필요

<러시아의 글로벌기업>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기업명	산업	총자산	해외자산	총매출	해외매출
1	LUKOIL	석유/가스	71,461	23,577	107,680	87,677
2	Gazprom	석유/가스	284,047	21,408	123,150	79,412
3	Severstal	금속/광업	22,480	12,198	22,393	13,514
4	Evrz	금속/광업	19,448	11,196	20,380	12,805
5	RENOVA	복합기업	20,000	8,500	17,000	9,150
6	Basic Element	복합기업	20,000	6,200	21,400	n.a.
7	Novolipetsk Steel	금속/광업	14,065	4,985	11,699	7,138
8	Sovcomflot	운송	5,727	4,642	1,634	n.a.
9	Norilsk Nickel	금속/광업	20,823	4,600	13,980	10,355
10	VimpelCom	통신	16,760	4,386	6,115	1,520
11	Sistema	복합기업	29,159	3,804	16,671	3,983
12	TMK	금속/광업	7,071	2,361	5,690	2,302
13	Mechel	금속/광업	12,010	2,315	9,951	4,609
14	Zarubezhneft	석유	2,433	1,900	774	n.a.
15	INTER RAO UES	전력	3,467	1,374	2,358	1,594
16	Koks	금속/광업	2,817	1,073	2,609	2,091
17	Eurochem	농화학	4,162	1,015	3,818	3,168
18	ALROSA	광업	9,553	860	3,100	1,472
19	OMZ	엔지니어링	1,275	714	1,175	588
20	FESCO	운송	2,164	707	1,247	75

주: 2008년 말 해외자산 기준 순위  
 자료: IMEMO-VCC Ranking(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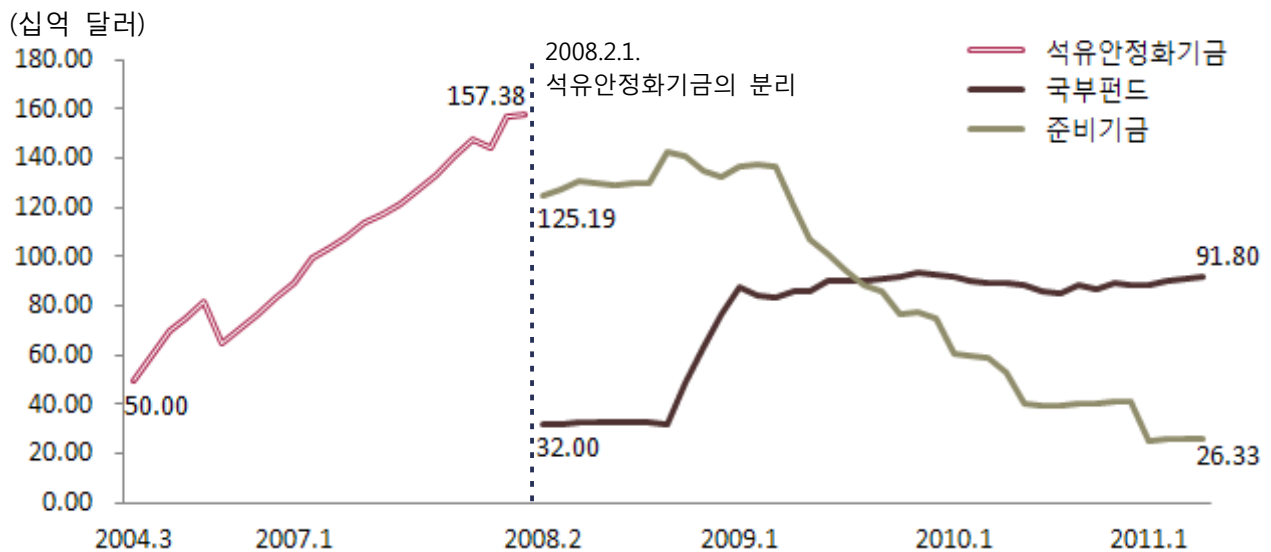
**국부펀드**

- 2004년 러시아 정부는 유가의 상승으로 발생하는 잉여자금을 관리할 목적으로, 예산지출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석유안정화기금(Oil Stabilization Fund)을 설립하고 적립을 시작했으며, 2000년대 중반 유가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안정화기금의 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함

- 이에 따라 2007년 말 러시아 총선을 앞두고 푸틴을 비롯한 고위관료들은 여유 기금을 국내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용할 것을 주장했으나, 쿠드린(Alexei Kudrin) 재무장관은 여유 자금의 국내 투자 시 주식시장의 거품 형성, 인플레이션의 발생 및 루블화 강세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 자금들을 해외에서 운용할 것을 설득

□ 이후에도 국내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계속되자 2008년 2월, 석유안정화 기금 1,570억 달러를 준비기금(Reserve Fund) 1,250억 달러와 국부펀드(National Wealth Fund) 320억 달러로 양분하여 설립

<러시아 국부펀드와 준비기금 적립 현황>



자료: 러시아 재무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

- 준비기금은 석유 및 가스의 수익이 적을 경우, 국가의 채무이행을 보조하기 위한 기금으로, 국내 총생산의 10%를 상한으로 설정하여 해외 국채 등 안정자산을 위주로 보수적으로 운영하며 10%보다 초과되는 금액은 국부펀드로 이전
- 국부펀드는 해외 기업의 지분투자 등 준비기금보다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운용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국 및 유럽과 같은 선진국의 안정적 자산에 투자되는 경향이 높아 현재로서는 한국을 투자대상국으로서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음

- 2008년 2월 약 320억 달러의 규모로 출범한 러시아의 국부펀드는 계속되는 유가의 상승에 힘입어 2011년 4월 말 기준 918억으로 3년 만에 약 3배 가까이 성장했으며, Sovereign Wealth Fund Institute가 발표하는 전 세계 국부펀드 순위에서도 11위에 오르는 등 풍부한 투자재원이 지속적으로 유입

<주요 국부펀드 순위>

순위	국가	펀드명	자산 (십억 달러)	설립년도
1	아랍에미리트	Abu Dhabi Investment Authority	627.0	1976
2	노르웨이	Government Pension Fund – Global	556.8	1990
3	사우디아라비아	SAMA Foreign Holdings	439.1	n/a
4	중국	SAFE Investment Company	347.1	1997
5	중국	China Investment Corporation	332.4	2007
6	중국(홍콩)	Hong Kong Monetary Authority Investment Portfolio	292.3	1993
7	쿠웨이트	Kuwait Investment Authority	260.0	1953
8	싱가포르	Government of Singapore Investment Corporation	247.5	1981
9	중국	National Social Security Fund	146.5	2000
10	싱가포르	Temasek Holdings	145.3	1974
<b>11</b>	<b>러시아</b>	<b>National Welfare Fund</b>	<b>142.5</b>	<b>2008</b>
12	카타르	Qatar Investment Authority	85.0	2005
13	호주	Australian Future Fund	72.9	2004
14	리비아	Libyan Investment Authority	70.0	2006
15	알제리	Revenue Regulation Fund	56.7	2000

주: 러시아의 경우 국부펀드와 준비기금을 합한 금액  
 자료: Sovereign Wealth Fund Institute (2010년 4월 기준 순위)

- 2008년 2월 국부펀드의 설립을 계기로 글로벌 투자자로서의 러시아의 위상이 더욱 높아진 가운데, 미국과 유럽 국가에서는 러시아 국부펀드의 자금운용방식에 대한 경계의 우려가 표출되기도 함

- 러시아의 쿠드린 재무장관은 국부펀드가 국가의 잉여기금운용을 위한 재무적인 투자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자금운용방식에 있어 정치적 운영태를 보이는 경우도 많아 그 구분이 모호한 상태임
- 러시아의 국영기업은 물론 민영기업의 운영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러시아 고위관료들의 영향력이 매우 크며, 국부펀드의 해외자산운용에 있어서도 이들의 결정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이어서 투자 대상선정 및 방식 등에 있어 정치적 논리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음

## 나.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특성

- 러시아의 자원관련 대기업들은 해외직접투자 전략을 통해 국제화를 이루는데 성공했으나, 이러한 국제적 활동 확장의 배경에는 기업이 공유하는 기본적인 동기 외에 러시아 기업의 고유의 해외투자를 촉진하는 동기가 존재

<러시아 기업의 해외투자 동기>

해외투자 동기	해외투자 사례
시장 접근	• MTS(Mobile TeleSystems)같은 통신기업들의 해외 통신서비스 회사 인수
자원 확보	• 석유·가스기업의 CIS, 중동, 남미 내 업스트림 인수 • Rusal의 Queensland Alumina(호주) 인수 • Norilsk Nickel의 Gold Fields(남아공) 인수
전략적 자산 확보	• Yukos의 Mazeikiu Nafta(리투아니아) 및 Transpetrol(슬로바키아) 인수 • Severstal의 Rouge Industries(미국) 인수
효율성 추구	• 석유회사들은 동유럽, 미국, 발틱 국가에서 소매자산과 주유소 인수

자료: KOTRA(2008)

- 러시아 경제의 특성상, 글로벌 기업들은 제한된 내수시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기회를 추구하기 위해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정치적 불확실성 또한 보유 자본을 상대적으로 안전한 해외로 유출시키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음

- 막대한 양의 천연자원 보유에도 불구하고 자원의 폭발적 수요로 인해 고갈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러시아 내 기존 석유와 가스자원 추출의 어려움과 비용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도 아프리카와 같은 지역으로 새로운 천연자원의 원천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실시하게 만들

□ 러시아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주로 자원관련 대기업들에 의해 석유, 천연가스, 자원 다운스트림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통신, IT, 금융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

- 러시아 통계청(Rosstat)에 의하면 연 매출 10억 달러 이상의 108개 러시아 기업 중 37개가 에너지와 금속관련 기업이었으며, 은행 및 금융 11개, 기계 10개, 건설 6개, 기타 교역관련 20개 등 非자원분야 기업의 약진이 발견됨
- 신규 사업 진입 시에는 전략적 자산 확보를 주목적으로, 에너지관련 사업은 원유수송 인프라에 대한 안정적 확보를 위한 다운스트림 시스템 취득을 목적으로 M&A를 활용

<러시아 글로벌기업들의 지역별 M&A 현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16	28	35	53	60	70	103	114	119	102	70
CIS	6	10	16	25	34	30	35	29	32	35	28
EU	8	12	17	18	17	28	41	50	56	44	31
기타 유럽		3		4		2	7	3	5	6	1
북미	2	3		1	2	2	5	10	11	9	5
아프리카			1	1	4	1		1	4		
중남미					1		1			4	1
아시아/호주			1	3	1	5	3	5	8		2
역외				1	1	2	10	9	3	2	1
기타					1		1	7		2	1

자료: UNU-MERIT(2011)

- 2000년대 중반 이후 기존 CIS 중심의 투자에서 유럽과 북미지역의 M&A 증가세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음
- 러시아 해외직접투자 특성의 변화는 자원관련 투자 외에 통신, 제조,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에 직접투자가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자원기반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산업 전반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해석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특성의 변화>

투자산업	석유, 가스, 철강 등 자원관련	⇒	자원, 통신, 제조, 금융 등 다변화
투자대상국	CIS국가	⇒	CIS국가 + 유럽, 미국, 아프리카
투자형태	자원분야의 greenfield 투자	⇒	M&A를 통한 신규사업/시장 진입

자료: 각종 보도자료 종합 작성

- 최근 러시아는 천연자원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으며, 에너지 자원 수출이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드러냄
- 2009년 기준으로 러시아 총 수출의 57%, GDP의 21%, 재정수입의 48%를 석유·천연가스 기업에 의존할 정도로 에너지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구조가 러시아 경제의 딜레마로 지적됨
- 이에 러시아 정부는 에너지부분에 편중된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 다변화를 역점과제로 추진 중이며, 풍부한 오일머니를 자동차 생산, 식품가공, 통신 등 제조업 분야에 확대 투자하는 것을 유도
- 특히 국제적으로 러시아가 경쟁력을 갖춘 기초과학분야 및 우주, 항공, 조선,

IT 등의 집중 육성, 원천기술의 상용화 및 제조업 분야 기반 확대를 통해 에너지 의존 경제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국가적 목표로 설정하며 향후 해외직접투자 정책의 방향을 제시

<러시아의 3단계 장기 경제발전 전략>

단계	1단계 (2008~2012년)	2단계 (2013~2017년)	3단계 (2018년 이후)
목표	경제혁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교육, 보건, 첨단 기술, 인프라 등 개발 착수	정보, 통신, 바이오, 나노 등 신기술 기반 경제로 전환	과학연구 분야 등에서 러시아의 선도적 지위 강화 및 혁신적 경제체제 발전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석유·원자재 가격 하락에 대한 적응과 GDP에서 에너지부문의 비중 축소</li> <li>▸ 인프라확장, 교육, 보건, 주택 등 공공서비스 현대화</li> <li>▸ 러시아 남부,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경제도시 건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amp;D 분야에 대한 효율성 증대, 세계적 수준의 고등 교육 및 연구센터 조성</li> <li>▸ 에너지 분야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 수송능력 향상, 정보통신 서비스 수출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유럽 수준으로 생활수준 향상</li> <li>▸ 유럽과 아시아의 경제통합 체제에서 러시아의 주도적 역할 담당</li> <li>▸ 첨단기술, 지식경제, 에너지, 수송 분야에서 경쟁력 현실화</li> </ul>

자료: 산업연구원(2008)



### 3. 러시아의 對韓 투자

#### 가. 러시아의 對韓 투자 동향

- 한국과 러시아는 1990년 9월 정식 수교(舊 소련)를 계기로 공식적인 경제교류가 시작되었으며, 1992년 러시아 연방 출범 후 본격적인 교역 및 투자가 이루어짐
  - 수교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던 교역량은 2000년 이후 유가급등을 바탕으로 러시아의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급증
  - 1992년 러시아 연방 출범 이후 2010년까지 한국과 러시아의 교역규모는 수출이 1억 1,800만 달러에서 2010년 77억 6천만 달러로 약 66배의 증가를 보였으며, 수입도 7,500만 달러에서 99억 달러로 132배의 성장을 기록
  -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승용차, 합성수지 등 제조업 제품이며,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은 원유 및 알루미늄 등 원자재에 집중되어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인 교역구조를 보임

#### <한-러 교역 및 직접투자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교역				직접투자			
구분	1992년	2010년	증가율(%)	구분	1992년	2010년	증가율(%)
수출	118	7,760	6,476.3	한국→러시아	7	215	2,971.4
수입	75	9,899	13,098.7	러시아→한국	1.5	5	233.3

주: 직접투자는 신고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입은행, 지식경제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

- 2010년 말 기준 양국 간의 교역은 약 176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나, 직접투자규모는 2억 달러로 교역규모의 80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직접투자 증가율도 교역 증가율에 비해 매우 낮음

- 특히 1992년 150만 달러로 출발한 러시아의 對韓 투자규모는 2010년 5백만 달러로, 18년 동안 3.3배의 증가율을 보이는데 그쳐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임

□ 러시아의 對韓 투자규모는 2002년 이후 소폭의 증가세를 보여 왔으나 투자규모가 매우 작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2008년 1,600만 달러(신고기준)로 최고치를 보였으나 글로벌 경제위기의 타격으로 급감하여 이듬해에는 142만 달러를 기록

<주요 對韓 투자국 현황>

(단위: 천 달러)

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전체	11,565,528	11,247,441	10,515,625	11,711,804	11,484,139	13,070,195
일본	1,880,795	2,111,046	990,290	1,423,941	1,934,253	2,083,233
미국	2,689,764	1,710,925	2,329,120	1,328,190	1,486,417	1,974,404
네덜란드	1,140,928	791,717	1,965,056	1,228,067	1,897,667	1,184,887
영국	2,316,458	706,556	363,853	1,232,792	1,952,895	648,956
중국	68,414	37,887	384,131	335,481	159,607	414,177
독일	704,812	483,907	438,902	685,418	569,813	268,260
프랑스	85,179	1,173,434	439,300	537,889	109,551	159,919
러시아 (비중)	2,506 <b>0.022%</b>	2,424 <b>0.022%</b>	2,526 <b>0.024%</b>	16,001 <b>0.137%</b>	1,426 <b>0.012%</b>	5,054 <b>0.039%</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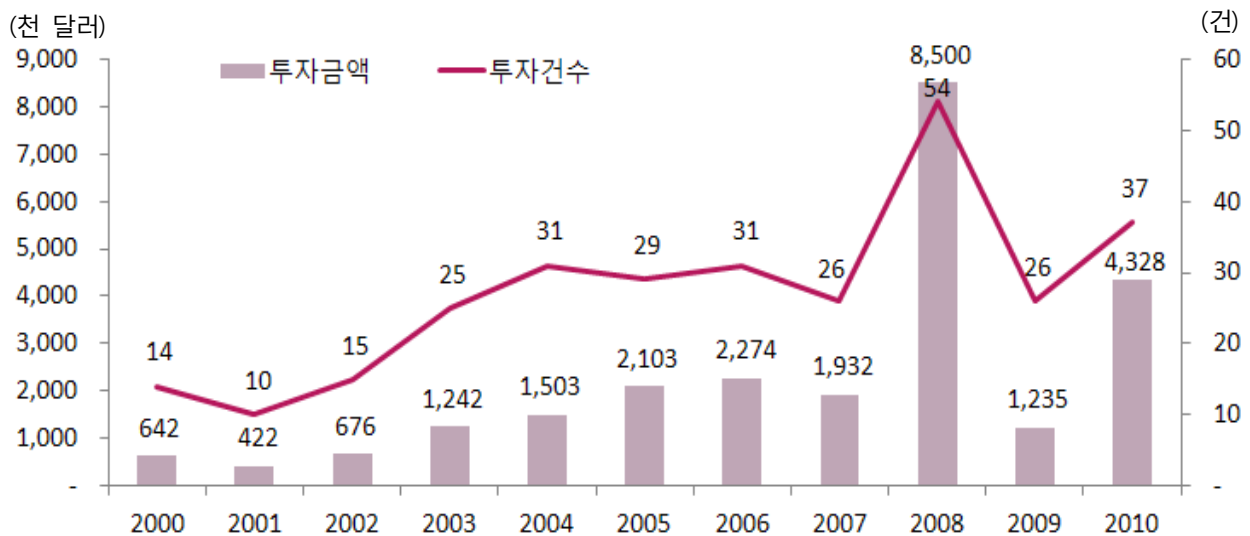
자료: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통계(신고기준)

- 지난해 1년간 러시아의 對韓 직접투자 금액은 505만 달러로 한화로 환산했을 때 57억 원에 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2010년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130억 달러의 0.039%에 불과
- 2009년 기준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460억 달러 중 한국에 투자한 금액은 142만 달러로, 러시아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0.0031%만이 한국으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남

## 나. 러시아의 對韓 투자 특성

- Invest KOREA의 도착기준 집계 자료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러시아의 對한국 투자건수는 총 298건이며 11년간 총 투자누계 총액은 4,539만 달러로 일반적 수준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치지 못하는 규모임

<2000~2010년 러시아의 對韓 투자현황>



주: 도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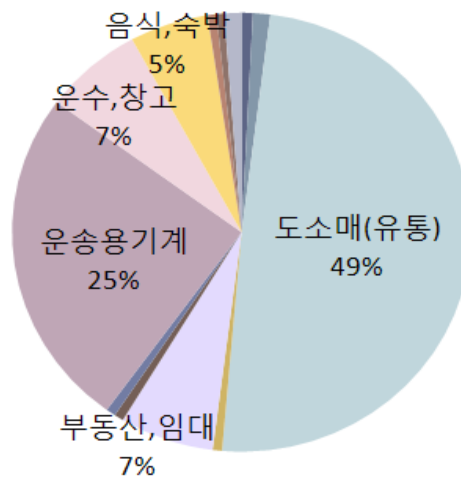
자료: Invest KOREA 내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

- 지난 11년간(2000~2010년) 러시아의 대한 직접투자 도착금액기준 상위 100건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도소매업의 투자건수가 총 7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운수·창고업 7건, 부동산·임대업이 4건, 운송용 기계(자동차·선박용 부품 제조) 3건 등으로 나타남
- 금액을 기준으로 비중을 살펴보면, 도·소매(유통) 부문의 투자금액이 812만 달러로 전체 對韓 투자금액의 49.4%를 차지했으며, 운송용 기계 부문의 투자금액은 413만 달러로 전체금액의 25%를 차지
  - 그 외 부동산·임대업 6.6%, 음식·숙박업 5.5% 등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나, 금액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소규모의 도·소매업이 많은 투자건수를 보이는 특성

상 러시아의 對韓 투자는 개인투자의 비중이 35%로 높음

- 이는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큰 흐름을 주도하는 기업이나 국부펀드 등 본격적인 러시아 자본의 투자유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며, 향후 이들 자금의 투자유치를 위한 양국 간 기반조성이 시급히 요구됨

<2000~2010년 러시아의 對韓 투자업종>



주: 도착금액기준

자료: Invest KOREA 내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

## 4. 러시아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 가. 투자유치 확대전략

- 러시아는 천연자원, 세계적인 기초과학기술,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한 획기적인 물류 협력 가능성 등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안보적 측면에서도 향후 큰 비중을 두어야 하는 중요한 파트너임
  - 한국은 러시아의 경제현대화와 극동지역 개발에 기여할 수 있고, 러시아는 한국의 에너지와 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큰 역할을 담당 가능
  - 시장원리에 입각하되 양국 간의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유치를 망라하는 장기적이고도 통합적 접근이 필요
  - 현재 일부 교역부문을 제외하고는 투자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교류의 토대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와 관련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국 간의 지속적 교류를 통한 관계기반 구축이 선결되어야 함

#### (1) 러시아의 산업발전정책에 부합하는 분야

- 자원관련 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는 현재 낙후되어 있는 제조업 분야의 부흥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해외 우수 제조 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해 선진기술 및 산업기반 구축이 필요
  - 현재로서는 유럽 및 미국의 선진 기업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자금난을 겪고 있는 아시아의 중대형 기업도 유망한 투자유치 대상으로 부각 가능
  - 실제로 2006년 한국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러시아 컨소시엄이 참여한 바 있으며, 국내에서 해외매각을 추진 중인 기업의 인수자 혹은 인수컨소시엄에 러시아 투자를 제안해볼 수도 있음

- 천연자원개발 및 개도국의 시장개척 부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러시아 해외직접투자는 주로 M&A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러시아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한국의 중대형 기업의 M&A 참여 기회를 제안하는 것도 방법
  - 러시아의 한국 제조업 M&A에 대해서는 2008년 타가즈코리아의 GM대우 기술 유출건과 같은 문제가 일부 논란이 되고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독일의 최근 투자유치 사례와 같이 M&A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한-러 경제교류의 양방향 관점에서 볼 때, 러시아가 보유한 막대한 천연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기초과학역량의 활용, 풍부한 자본의 활용 등을 위해서는 경제협력관계의 구축 및 강화가 우선적 과제임

**(2) 에너지 다운스트림 분야**

- 최근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정세불안에 의한 유가급등과 관련하여 한국의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 필요성이 대두됨과 동시에 러시아의 원유 및 천연가스의 기업의 다운스트림 분야 투자유치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음

<한·중·일 에너지 수입의존도>

(단위: %)

국가	에너지 수요 평균성장률	석유 수입의존도		중동지역석유 수입의존도		에너지 수입의존도		
		2006-2030년	2009년	2030년	1994년	2008년	1980년	2002년
일본	0.5	99.7	100	67.3	88	88	82	78
중국	3.7	51.3	77	18.9	42.2	-3	0	18
한국	2	100	100	63.9	82.2	77	84	77

주: 2030년의 자료는 『APEC Energy Demand and Supply Outlook 2030』의 추정치  
 자료: Pan-European Institute(2010)

- 한국의 경우 중동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한중일로 밀집된 아시아 수요 시장에 위치한 관계로, 중동으로부터 수입하는 원유의 가격이 미국등 주요수입

가보다 배럴당 1~2달러가량 높은 가격에 구입(중동 산유국의 아시아 프리미엄)

- 한국은 에너지 수입과 관련해서 2008년 기준으로 전체 에너지 수입원 중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82.2%로 중동 지역 의존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에너지 수입원 다변화 차원에서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도입 검토 필요

<한·중·일·러 4개국의 에너지 정책 비교>

국가	에너지 정책 주안점	취약점	지향점	강점	한계점
일본	에너지 효율성 추구 및 감축 정책 2020년까지 석유 의존도를 40%로, 운송부문의 석유 소비량을 80%로 절감	중동지역에 대한 높은 의존도 높은 석유 의존도 신흥 에너지 시장 확보에 있어 중국과 한국의 추격	다양한 부문에 걸친 에너지 협력을 통한 국가안보 추구	막강한 자본력 선진화된 기계기술 최첨단의 건설/플랜트 기술력 보유	국내 파이프 인프라 부재 전력부문의 영향력 있는 압력단체 존재 동북아 국가들과의 영토분쟁
중국	2010년까지 20%를 절감하는 에너지 효율 정책 국영석유기업의 글로벌화 추진 시장 지향적 에너지 관리 정책	급격한 에너지 수요 폭증 외부자원에 대한 수입의존도 증가 환경파괴문제 에너지정책에 대한 대외적 견제	동북지역의 개발 동북아 지역에서의 국가위상과 리더십 강화	풍부한 국가재정 인건비 경쟁력을 갖춘 풍부한 인력	비시장부문의 규제 동북지방의 에너지 인프라 부족 영토분쟁(일본)
한국	석유 화학산업의 경쟁력 제고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 감축 에너지 효율 추구	중동지역에 대한 높은 의존도 북한과 관련된 안보문제	북한과의 통일 동북아 지역 에너지연합 출범의 주도적 역할	국가 및 민간부문의 풍부한 자본력 건설/플랜트 기술, 시추 및 정제 기계 부문의 선진화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북한에 의한 북방로 차단 영토분쟁(일본)
러시아	에너지 관련 인프라 구축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부문의 노후설비 교체 지역 간 경제개발 격차 해소 에너지 수출국의 다변화 에너지 관련분야 연구개발 강화	노후화된 설비로 인한 생산성 저하 에너지 관련 인프라의 절대 부족 지역 간 경제개발 격차 유럽에 대한 높은 의존도	에너지효율 추구 유럽지역에 대한 높은 수출의존도 탈피 에너지부문의 관련기법 및 기술업그레이드 시베리아 동부와 극동지역의 개발	풍부한 에너지자원 정부 및 민간 부문의 자본력 보유 에너지 탐사 및 채굴 기술 에너지 부문의 숙련된 인력보유	미개발 지하자원의 현황파악 부족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는 자원개발 까다로운 규제 영토분쟁(일본)

자료: Pan-European Institute(2010)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

- 업계에서는 사할린이나 극동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공급이 확대된다면 중동산과의 가격경쟁으로 유가상승 압력을 제어할 수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투자협상이 필수적
- 러시아도 에너지 수출의 대유럽 의존도 감소 및 최근 유럽지역에서 보이고 있는 가스 공급선 다변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 필요한 상황
- 극동시베리아 개발을 위해 지역적으로 가까우며 막대한 개발비용을 투자할 아시아 및 북미지역의 새로운 시장이 절실
  - 그러나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시장은 공급가격 산정문제, 파이프라인 노선 문제, 가스전의 탐사 및 개발비용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어 구체적 협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음
- Gazprom, LUKOIL과 같은 러시아의 자원기업들은 자신들에게 시장을 개방해준 나라와 기업에 한해 러시아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정책을 실행
- 러시아의 경우 자사의 에너지가 공급되는 국가에는 다운스트림 산업에 진출하는 전략을 관철시키고 있어, 러시아의 에너지 도입이 본격화 될 경우 한국의 다운스트림 분야의 진출도 가능
  - 러시아도 유럽 및 CIS지역에 편중된 수출대상을 다변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2020년까지 석유 총 수출량의 30%를, 천연가스는 15%를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투자유치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한국 및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수출은 파이프라인을 통한 운송망이 거의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당분간 원유수송선 및 LNG선을 이용한 선박수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



-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과 관련한 운송부문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에너지운송선 부문의 전문 기술을 보유한 국내 조선업체도 투자유치 유망
- 또한 국내 에너지공급설비업체에 대한 러시아의 설비투자 및 지분참여 유도를 통해, 러시아 에너지기업의 한국 다운스트림 투자유치와 동시에 안정적인 에너지수입원 확보의 두 가지 효과를 추구 가능
- 2009년 노르웨이의 글로벌 액체화물 유통기업인 오드펠(Odfjell)사의 울산항만 공사 설비투자사례와 같이 한국 및 제 3국으로 운송되는 러시아 에너지의 물류허브(저장탱크터미널) 시설 투자 유도
- 기타 에너지 다운스트림 분야의 시설 및 운송 파이프 제조 등을 위한 금속·철강 등 관련업체의 지분참여 및 설비투자 제안
- 장기적으로는 다운스트림 부문의 투자유치뿐 아니라 탐사, 개발, 생산과 같은 업스트림 부문의 한-러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자원 확보 및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해야 함

### (3) 농업 및 운송 분야

- 러시아의 1차 산업 및 운송 부문은 막대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투자대상인 동시에, 사업에 러시아의 풍부한 자금을 유치하는데 있어 개발협력이라는 호혜적인 명분도 제시할 수 있음
  -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농지개발에 있어 한국이 보유한 뛰어난 농업기술, 관리기법 및 기업가정신과 러시아의 풍부한 자본 및 토지가 결합된 역 round-trip형 투자유치
  - 이는 러시아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극동농지개발협력과 한국의 해외식량기지 건설 등 양국의 조화로운 이해관계가 성립됨은 물론, 동북아 국가 간의

물류를 연결하는 운송부문 합작투자를 통해 경제협력체계 발전의 기회를 제공

- 극동시베리아 지역 농업개발투자가 갖는 경제적, 안보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러시아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와 상호간에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방식을 개발해야 하며,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 (4) 부동산 개발 및 관광 분야

□ 러시아의 경우 개인 부동산 사업가들이 해외의 관광부문에 투자를 하는 사례가 많으며, 이들의 투자규모는 러시아의 연간 한국투자규모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7년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 매각 시 계약서상의 매수자는 해운물류회사였지만, 1,000억 원에 달하는 매입자금은 러시아 세관원 출신의 인물이 투자를 유치해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실상 그랜드호텔의 실질적 소유는 러시아계 자본가로 알려짐(매일경제신문, 2008.3.3.)
- 2009년부터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투자자 영주권 제도의 도입이후 제주도 휴양단지 내 관광시설에 대한 러시아를 비롯한 인근 국가로부터의 투자가 이어지는 등 투자유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5) 기술개발 프로젝트 확대

□ 러시아 정부는 2009년부터 러시아 산업 현대화를 위해 5대 핵심 산업(에너지 효율화, 원자력, 우주과학, 의료, 정보통신)을 중점적으로 육성중이며, 나노기술, 재생에너지 발전을 포함한 선진 혁신기술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실시 중

- 한국의 경우 앞선 상용화 기술 협력을 활용할 수 있는 국가로, 러시아와의 다양한 기술합작 프로젝트가 준비·진행 중에 있으며, 기술협력의 경우 러시아 관

### 런 교류 중 가장 활발한 분야중의 하나임

- 러시아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상용화 기술을 결합한 상품화가 대표적 방법이며, 이를 통해 제 3국의 동반진출 방안도 모색 가능

□ 2007년 러시아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설립된 RUSNANO(러시아 나노기술공사)는 나노분야의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과의 상용화기술 협력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RUSNANO의 경우 사장이 직접 여러 번 한국을 방문하여 합작프로젝트를 타진한 바 있으며, 원천기술과 비용의 상당부분을 러시아가 제공하고 한국 측은 상용화기술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
- RUSNANO는 2009년 한국 표준과학연구원과 상호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는 등 한국의 상용화 기술에 적극적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한국 외에도 싱가포르의 나노기술,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 프랑스의 반도체 부품 기술 등 전 세계의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합작에 나서고 있음

□ 올해 2월에는 서울시와 한국전기연구원이 5개 러시아 국립대학 및 연구기관과 DMC 첨단산업센터 내에 러시아사이언스서울연구소(RSS)를 개소하고, 러시아 원천기술과 한국의 상용화 기술을 접목해 최첨단 의료장비 개발을 시작

- RSS연구소는 40여명의 러시아 연구원이 한국으로 와서 연구를 진행 중이며, 향후 연구 성과에 대한 지적재산권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공유하게 되어 기술 합작에서 실제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는 첫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음

## 나. 장기적 관점의 투자협력 기반 조성

### (1) 러시아데스크 설치

- 러시아 내 잠재적인 한국투자자를 발굴하고 對러시아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대한 정확한 투자정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투자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러시아데스크가 필요
  - 양국 간 투자유치를 원하는 기업과 투자대상을 찾고 있는 기업 간에 정보교류의 통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실제 투자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자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수행
  - 또한 러시아와 관련된 투자정보 제공과 국내투자 알선, 투자애로상담 등을 지원하며 지역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및 산업별 투자전문가와 함께 러시아 자본유치가 유망한 분야를 발굴
  - 한-러 투자포럼(가칭) 및 소규모 분과별 투자협력 위원회 개최, 양국을 오가는 한-러 투자사절단 정기방문 등 경제협력 관련 회합의 정례화를 통해 상시적인 교류기반을 확보

## (2) 다방면의 교류기반 확대

- 러시아는 현재의 시장이 아닌 미래의 시장으로서의 의미가 매우 크며,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교류 확대와 상호간 투자를 통한 관계구축이 선결과제임
  - 국가주도의 경제 특성상 정부차원의 기반조성이 매우 중요하며, 투자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정상회의 등을 통한 정상급 합의와 큰 틀의 추진력이 필요
  - 한-러 모두 고위급의 정책적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점에서 양국 정상의 정책에 대한 의지와 공감의 뒷받침되는 경우 경제협력의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 양국 중앙정부 차원의 상설 협의기구를 설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경제현안별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직접적 투자 이슈와는 별도로 극동시베리아 개발 및 동북아 협력 차원의 지역경제, 문화, 교육, 의료, 환경, 스포츠 등 사회 전반적인 교류를 정례화

□ 러시아의 자원, 지역개발권 확보 및 동북아시아의 영향력을 놓고 EU와 미국은 물론 이웃 중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對러시아 교류 기반구축이 시급한 상황

- EU는 최근 러시아의 자동차 시장이 높은 성장을 보이면서 에너지부분에 집중되었던 러시아 투자를 자동차, 원자재 등으로 확대하며 시장의 다변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프랑스 전력공사는 흑해 해저를 통과하여 유럽으로 연결되는 Gazprom의 가스관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등 경제협력의 폭을 넓혀가는 중
- 미국은 그간 정치적 입장에 의해 제한된 對러시아와 정책을 펼쳐왔으나 점차 러시아, CIS 및 유럽으로의 확대와 공조관계를 유지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WTO가입 추진에 따른 미국의 對러시아 수출구조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중국은 러시아의 중국 내 정유소 건설, 주유소 경영권 확보, 중국시장에 대한 참여권을 등 제시하고 그 대가로 태평양 파이프라인을 통한 대중국 원유공급 및 중국의 러시아 석유사업 참여 허가를 받아냄
- 또한 러시아의 경제구조 개편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투자공사(CIC)는 올해 러시아 펀드 및 민영화 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
- 일본은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에 있어 쿠릴열도 분쟁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걸음 물러나 러시아의 자원 확보를 위해 중국 및 한국 등 주변국들과 경쟁 중

- 최근에는 사할린-II 프로젝트(사할린 북동부지역의 가스·유전을 개발하여 파이프를 통해 남쪽 부동항인 프리고르도노예(Prigordonoye)까지 수송하고 액화시킨 후 판매)에 Gazprom(50%), Shell(27.5%)과 더불어 일본의 미쯔이(12.5%)와 미쯔비시(10%)가 참여하는 등 자국의 선진기술력을 활용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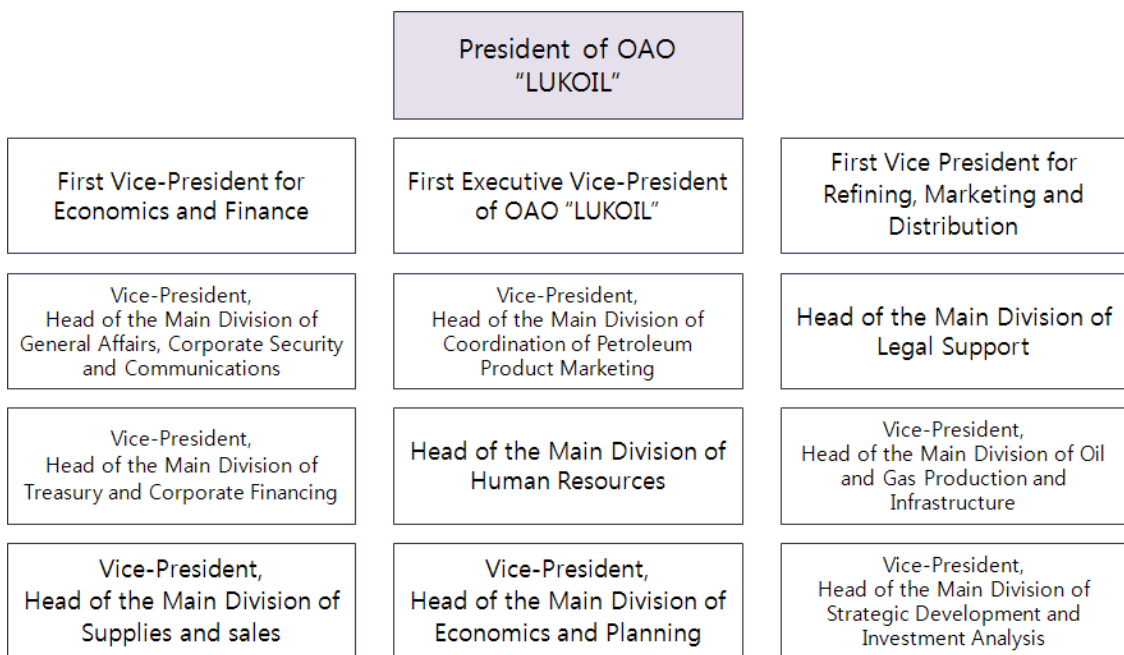
□ 러시아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국 간에 유기적으로 연계된 다방면의 협력방안이 추진되어야 하며, 투자대상으로서의 정보 제공과 함께 전략적 동반자로서 지속적인 교류 기반을 조성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참고자료】 러시아의 20대 다국적기업

### 1. LUKOIL

- LUKOIL은 러시아 최대의 민영 석유기업으로, 석유와 가스의 탐사, 시추, 석유화학 및 석유관련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을 포괄하고 있으며, 전 세계 원유 매장량의 1.1%, 생산량의 2.3%를 차지
- 1991년 소련의 각료회의에 의해 “LangepasUraiKogalymneft”(LUKOIL)가 국영 정유사로 출범한 후 민영화되었으며, 회사의 주요 주주로는 LUKOIL 회장 Vagit Alekperov(20.6%), 부회장 Leonid Fedun(9.25%), 미국의 다국적기업 ConocoPhillips(20%) 등이 있음

<LUKOIL의 조직도>



자료: LUKOIL(<http://www.lukoil.com>)

- LUKOIL의 주요 유전은 서부 시베리아에, 정유 공장은 니주니 노보고로드(Nizhny Novgorod), 페름(Perm), 볼고그라드(Volgograd)에 위치하며, 석유 발굴 및 생산 작업 대부분이 러시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생산된 석유 제품들은 전 세계에 판매됨

- 1990년대 중반부터 외국으로의 투자를 시작한 LUKOIL은 아제르바이잔(1994), 이집트와 카자흐스탄(1995), 이라크(1997), 콜롬비아(2002), 이란(2003), 사우디아라비아와 우즈베키스탄(2004), 베네수엘라(2005), 코트디부아르(2006), 가나(2007)에서 유전과 가스전의 발굴 및 생산부문의 지분을 인수
  - 1998년에는 루마니아의 페트로텔(Petrotel)사의 지분을 인수하며 국제 정유 사업으로까지 진출하였고, 1999년 불가리아와 우크라이나에도 투자해 정유 공장을 인수하고 현대식으로 개조
  - LUKOIL의 전 세계 6,700여 개 주유소 중 70%가 미국(2008년 말 1,524개), 터키(777), 핀란드(456), 루마니아(319), 우크라이나(285), 불가리아(209), 세르비아(184), 벨기에(157), 리투아니아(120), 폴란드(106)와 같은 외국에 위치

## 2. Gazprom

- Gazprom은 러시아 최대 기업으로 전 세계 가스 생산의 약 18%를 담당하고 있는 글로벌 선도 에너지 기업으로, Gazprom 그룹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 매장지를 보유
  - 1989년 소련 가스산업부 산하에 Gazprom State Gas Concern이 설립되었으며, 1993년 Gazprom Russian Joint Stock Company의 기반을 구축하였고, 1998년 Gazprom Open Joint Stock Company로 사명을 변경
  - 현재 러시아 정부와 국영 기업들이 Gazprom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며, 최근 원유 생산에도 참여하고 러시아 내에 자체적인 원유 및 가스 정제 공장과 전력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다각화된 에너지 기업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천연가스 수출은 여전히 회사의 가장 중요한 사업임
- 천연가스의 수송과 보급에 소요되는 세부 기술은 수출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를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Gazprom은 1990년 초부터 외국으로의 진출을 꾀하였으며, 현재 독일, 우크라이나, 폴란드, 벨로루시, 발트3국과 유럽 국가에 투자

- 2000년대 들어 Gazprom은 천연가스 발굴 및 생산에 있어 해외투자를 시작하였는데, 중앙아시아에서 시작하여 베트남과 남아메리카 그리고 일부 아랍 국가에까지 진출
- 또한 2003년부터 리투아니아의 전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르메니아에 새로 발전소를 건립

<Gazprom의 조직구성>

Accounting Department	Administrative Department	Asset Management and Corporate Relations Department	Central Operations and Dispatch Department
Competitive Purchases Department	Department for Relations with Russian Federation Authorities	Economic Expert Analysis and Pricing Department	Finance and Economics Department
Gas and Liquid Hydrocarbons Processing and Marketing Department	Gas, Gas Condensate and Oil Production Department	Gas Transportation, Underground Storage and Utilization Departmen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Department
Internal Audit Department	International Business Department	Investment and Construction Department	Legal Department
Personnel Management Department	Process Control System Automation Department	Project Management Department	Strategic Development Department

자료: Gazprom(<http://www.gazprom.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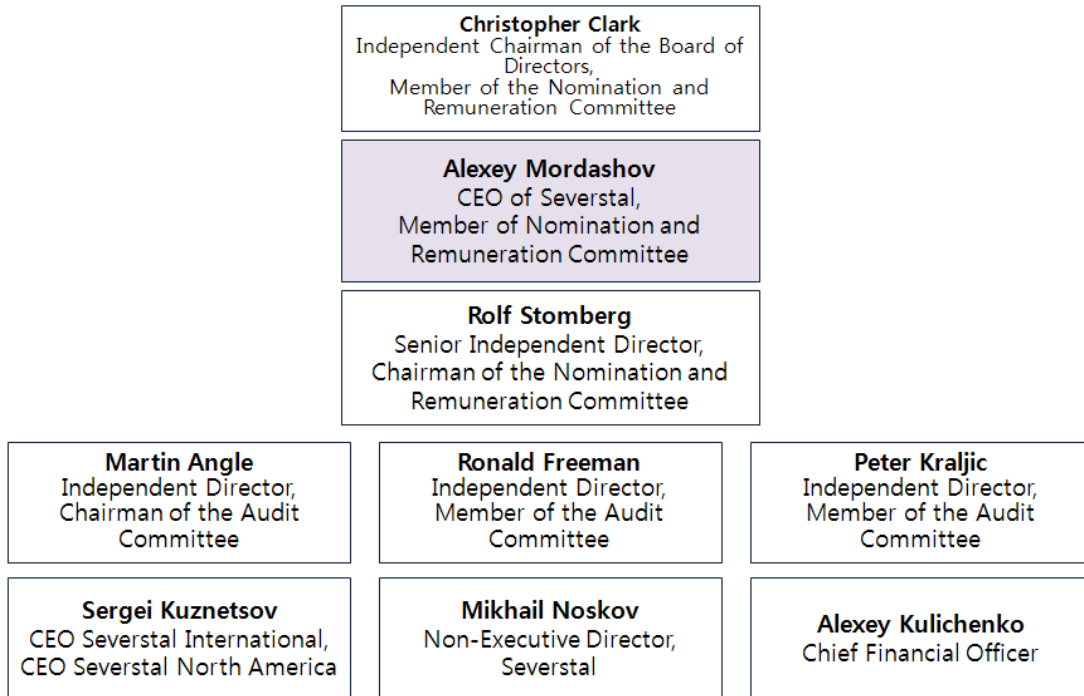
### 3. Severstal

□ Severstal은 러시아 최대의 수직통합형 철강 회사이자 전 세계 Top 15 철강 생산 기업에 꼽히는 회사로, 강철과 압연금속 외에 석탄과 비철금속 제품도 생산

- 1993년 러시아 볼로그다(Vologda)주의 체레포베츠(Cherepovets)에 설립되었으

며, 알렉세이 모르다쇼프(Alexey Mordashov)가 Severstal의 CEO이자 대주주로 82%의 지분을 보유

<Severstal의 조직도>



자료: Severstal(<http://www.severstal.com>)

- Severstal은 2004년에 주요 시장인 미국으로의 진출을 시작으로 해외 투자를 시작했으며, Severstal의 해외 계열사들은 주로 강철과 압연금속을 생산

#### 4. Evraz

□ 1992년에 설립된 Evraz 그룹은 주철, 강철, 압연금속을 생산하는 수직통합형 기업으로 철강제품 교역을 전문으로 하며 석탄, 바나듐의 채굴과 생산 부문도 담당

- 회사 지분의 70% 이상은 로만 아브라모비치(Roman Abramovich)의 Millhouse 사가 지배하는 Lanebrook Ltd., Evraz CEO 알렉산더 프롤로프(Alexander Frolov), Evraz 회장 알렉산더 아브라모프(Alexander Abramov)(Evraz의 전신인 EvrazMetal의 설립자)가 보유

- Evraz는 강철과 압연금속을 생산하는 이탈리아의 Palini와 체코의 Vitkovic Steel 두 회사의 지분을 인수를 통해 해외투자를 시작하였으며, Evraz의 해외 투자는 강철과 압연금속을 생산하는 회사 외에도 바나듐, 코크스, 철광석을 채굴하고 생산하는 회사로도 확대

<Evraz 그룹의 사업부 구조>

Steel	Iron Ore	Coal Mining and Processing	Vanadium	Sales, Services & Logistics
DMZ	Evrzruda	Bagleykoks	Nikom	Nakhodka Sea Port
Evrz Highveld	KGOK	DKHZ	Stratcor	Sinano
Evrz Inc. NA	Sukha Balka	Dneprokoks	Vanady-Tula	Evrztrans
Evrz Inc. NA Canada	VGOK	Raspadskaya		Inprom
Evrz Palini e Bertoli		Yuzhkuzbassugol		East Metals
Evrz Vitkovic				EvrzMetall
NTMK				TC EvrzHolding
NKMK				EvrzEK
Zapsib				MEF

자료: Evraz(<http://www.evraz.com>)

## 5. RENOVA

- 1990년 빅토르 벡셀베르크(Victor Vekselberg)가 설립한 RENOVA 그룹은 전력, 주거 서비스, 건설, 교통, 통신, 화학, 비철금속, 기계 등 다양한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복합 대기업
- 민영기업인 RENOVA는 2005년에 첫 해외진출을 시작하여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 스위스, 이탈리아, 벨로루시 등으로 활발한 투자를 실시하며 계열사를 확장

<RENOVA의 사업부 구조>

Oerlikon	MANAGEMENT COMPANIES							INVESTMENT FUNDS	SHARE IN BUSINESS
HEVEL LLC	Avelar Energy	Integrated Energy Systems	AKADO	Renova Orgsintez	Renova Stroygroup	Energoprom Group	Interminerals Management	Columbus Nova	TNK-BP
Big Pension Fung	RKS Russian Utilities	TGK 5	AKADO Telecom	Chimprom Novocheb oksarsk	Academia City	Novocherka sk Electrode Plant	United Mangnese of Kálahari		UC Rusal
Metcombank		TGK 6	AKADO Stolica	Neftekhinia		Novosibirsk Electrode Plant	Karabaltinsk Ore Plant		Sulzer
Koltsovo Airport		TGK 7		Chimprom Volgograd		Chelyabinsk electrode Plant	Transalloys		Irkutskcable Kirs cable
Kamchatka Gold		TGK 9					Darwendale		EMAlliance
Ekateringburg non-Ferrous Processing Plant									KUMZ
Ural Turbine Plant									Rusinves tpartner
Latvian Real Estate									
Kamensk-Uralsky Non-Ferrous Metals Processing Plant									

자료: RENOVA(<http://www.renova.ru/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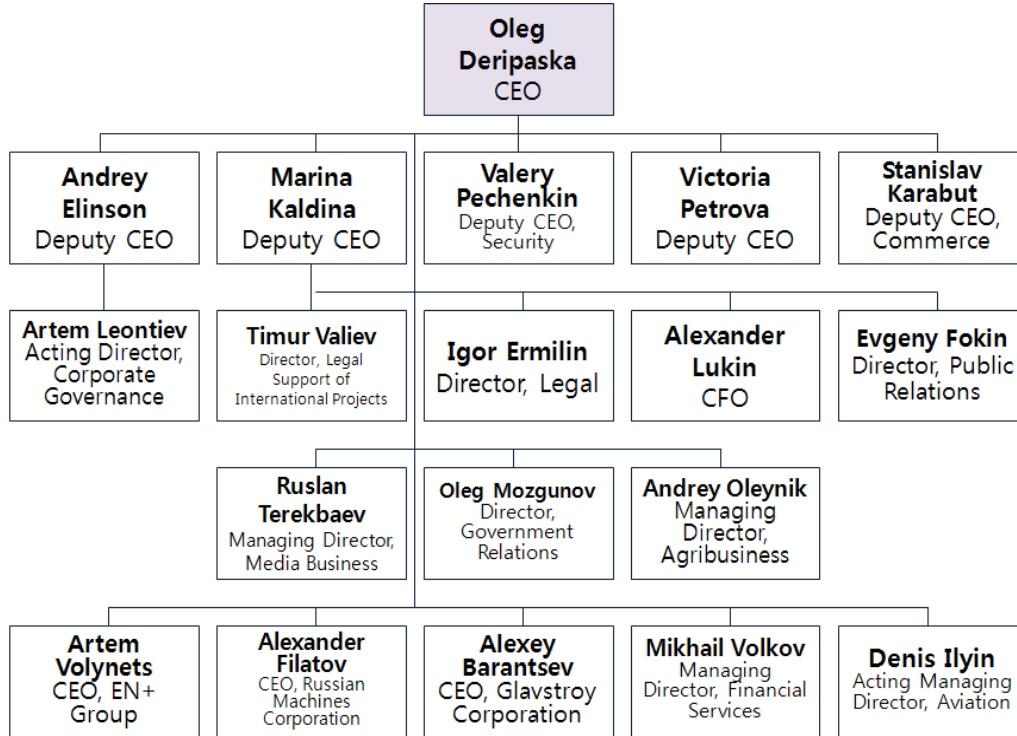
## 6. Basic Element

□ Basic Element는 복합 기업으로 Rusal, GAZ 그룹과 같은 러시아의 대기업을 포함하며, 회사의 활동 영역은 비철금속(주로 알루미늄과 구리), 교통 설비 및 서비스, 석탄, 석유, 펄프 및 제지, 건설, 전력, 금융 서비스 등임

- Basic Element의 계열사 중 하나로, 1997년 Siberian Aluminum Company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Rusal는 세계 최대의 알루미늄(11%)과 알루미나(13%)를 생산
- Basic Element의 국외 활동의 범위는 매우 넓어 전형적인 복합 대기업을 하고 있는데, 2000년대 초반 아르메니아, 가이아나,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기업들의 인수를 통해 일련의 글로벌 금속 기업을 설립하였고, 이후 교통 설비

(영국, 캐나다), 건설(오스트리아, 스위스)에도 진출

<Basic Element의 조직도>



자료: Basic Element(<http://www.basel.ru/en>)

<Basic Element의 사업부 구조>

Energy	Aviation	Construction	Financial Services	Manufacturing	Other Businesses
Strikeforce Mining and Rosources	TAVS Kuban	Glavstroy	Ingosstrakh	GAZ Group	Venture Projects
DOZAKL	Basel Aero	BaselCement	Soyuz Bank	RM Systems	Aviation Fuel
CEAC Holdings	JSC Kuban Airlines	Altius Development	Element Leasing	Military Industrial Company	Textile Business
United Oil Company	Gelendzhik Airport	Transstroy	NPF Socium	Aviacor	Timber Processing
EuroSibEnergO	Anapa Airport		Ingosstrakh Investments	JSC Russian Corporation of Transport Manufacturing	Network Projects
UC RUSAL	Krasnodar Airport		Medical Clinics "Be Healthy"		Port Business
	Sochi Airport		NPF Stroycomplex		Real Estate
			Ingosstrakh-M		Media Business
					Agribusiness

자료: Basic Element(<http://www.basel.ru/en>)

- 2006~2007년 사이에는 국제금융위기로 그룹이 일부 사업계획을 포기하는 등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지만, 현재 Basic Element는 호주, 가이아나, 몽골, 나이지리아, 스웨덴, 자메이카 등을 포함하여 5대륙 모두에 진출한 상태

## 7. Novolipetsk Steel (NLM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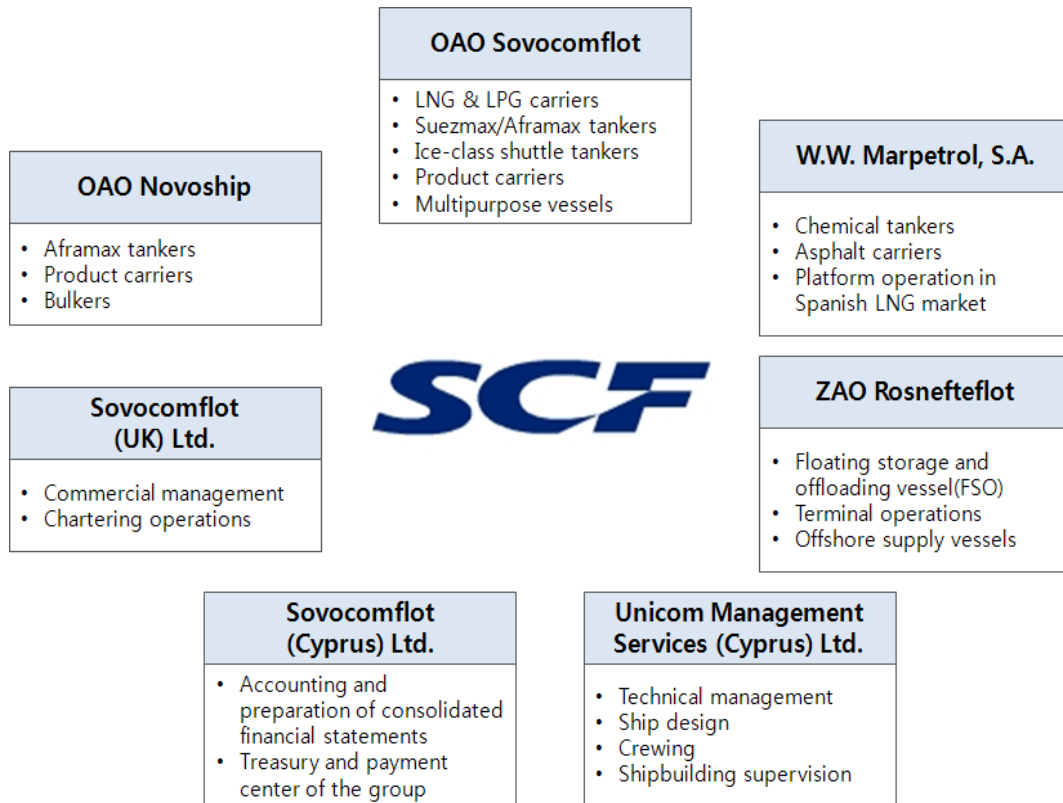
- 노블리페츠크 철강(Novolipetsk Steel, NLMK)은 주철, 강철, 압연금속, 철광석, 코크스를 생산하는 기업이며, 현재 러시아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산업계에서 막강한 지위를 보유
  - 러시아산 강철의 15%를 생산하고 있는 NLMK는 글로벌 시장에서 슬래브(slab)의 점유율은 11%, 변압기 압연금속의 점유율은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Fletcher Group Holding Ltd.가 77% 이상의 지분을 소유
  - NLMK는 2005년 말 이후로 LSE에 상장되었고 러시아 증권거래소인 RTS와 MICEX에서도 거래
  - NLMK는 2005년 철강과 압연금속 생산업체인 덴마크의 DanSteel A/S를 인수함으로써 해외진출을 시작했으며, 현재 미국, 벨기에, 이탈리아, 프랑스 및 기타 국가들의 철강기업 인수를 통한 글로벌 확장을 계속하고 있음

## 8. Sovcomflot

- SCF 그룹의 계열사인 Sovcomflot는 에너지의 해상수송을 전문으로 하는 러시아 최대의 선박회사
  - Sovcomflot와 또 다른 대형 선박회사인 Novoship의 합병을 통해 SCF 그룹이 2008년부터 아프라맥스(Aframax) 및 스웨즈맥스(Suezmax)급 탱커 부문 시장에서 선도기업으로 자리 잡음

- 1988년 舊소련 상선부(Ministry of Merchant Marine) 조직에 뿌리를 두고 영리 법인으로 설립된 후 1993년 합자회사로 변경되었으며, 수상송유장치(oil terminal)와 예인선(tug)의 운영을 포함한 항만 관련 서비스의 제공이 최근 들어 그룹의 중요한 활동으로 자리 잡음

<SCF 그룹의 사업부 구조>



자료: Sovcomflot(<http://www.scf-group.com>)

## 9. Norilsk Nick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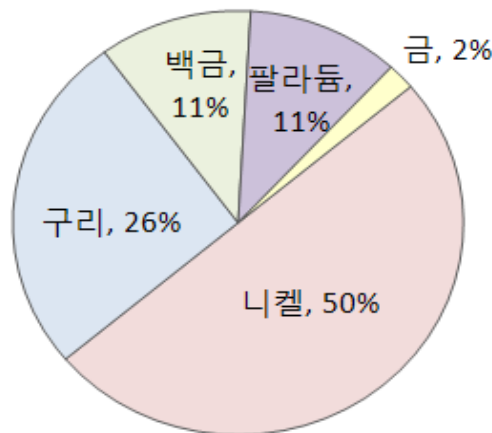
□ Norilsk Nickel은 백금, 팔라듐, 니켈, 구리, 금, 그 밖의 비철금속의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세계 최대의 니켈(세계 생산의 21.4%)과 팔라듐(44.8%) 생산업체이며, 백금(10.7%) 생산의 최고 5개 업체 중 하나이고, 구리(2.7%)의 주요 생산업체임

- 1990년대 중반에 25%의 주식자본을 소유한 블라디미르 포타닌(Vladimir Potanin)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Basic Element의 CEO인 올레크 데리파스카

(Oleg Deripaska)가 소유한 세계적인 알루미늄 기업인 Rusal도 25%를 보유

- Norilsk Nickel은 LSE, 러시아의 RTS와 MICEX를 포함하여 세계의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러시아 내 기업설비는 크라스노야르스크 크라이(Krasnoyarsk Krai)와 무르만스크(Murmansk) 지역에 집중

<Norilsk Nickel의 금속별 2009년 매출 구성>



자료: Norilsk Nickel(<http://www.nornik.r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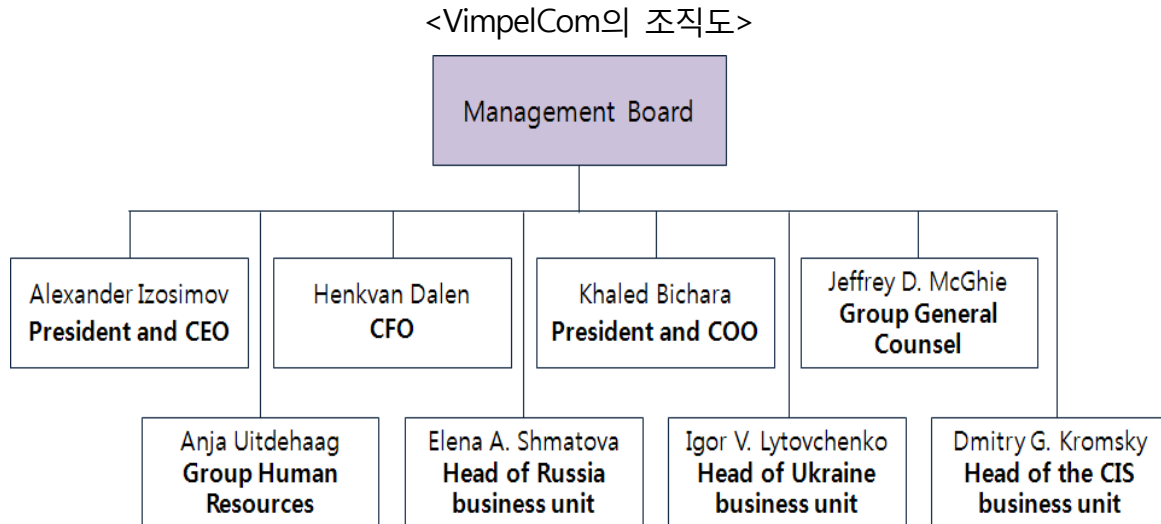
- Norilsk Nickel은 2003년 백금, 팔라듐 생산업체인 미국의 Stillwater Mining을 인수했지만 그 이후 눈에 띄는 해외투자활동은 없으며, 해외 계열사는 현재 호주, 보츠와나, 미국, 핀란드, 남아프리카에 위치

## 10. VimpelCom

- VimpelCom(Vimpel-Communications)은 러시아의 국내시장의 이동통신 분야 선도기업으로 4분의 1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Beeline"이라는 브랜드로 무선과 유선, 브로드밴드 기술을 통해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
- 1992년 엔지니어인 드미트리 지민(Dmitry Zimin)교수에 의해 설립되었고 1996년 11월 ADR로 NYSE에 주식을 상장한 첫 러시아 회사로 기록됨



- VimpelCom 그룹의 계열사들은 카자흐스탄(2004년, 국내시장의 43% 점유율 기록), 우크라이나 및 타지키스탄(2005년),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및 아르메니아(2006년부터), 베트남과 캄보디아(2008년)에서 운영 중



자료: VimpelCom(<http://www.vimpelcom.com>)

## 11. Sistema

- Sistema(Joint-Stock Financial Corporation Sistema)는 통신, 미디어, 석유생산과 정제, 하이테크, 그리고 관광, 소매, 보험 등 소비자 사업부를 거느린 복합기업
  - 그룹 내 가장 큰 기업은 VimpelCom의 주요 경쟁자인 MTS으로, Sistema는 그룹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MTS의 지분 54%를 소유
  - Sistema는 또한 통신사업부에 있는 Comstar-OTS(53%), Shyam(74%) 및 CMM(100%)의 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고, 군수업체인 RTI Systems(100%)과 통신장비생산회사인 Sitronics(71%)의 지분도 보유중이며, 기타 사업영역에서 러시아 최대 규모의 여행사인 Intourist(66%) 지분을 보유
  - Sistema의 해외투자는 MTS가 벨로루시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Sitronics가 체코에 소재한 STROM 텔레콤을 인수한 2002년 시작되었으며, 오늘날 MTS는 독립

국가연합(CIS) 중 5개국인 벨로루시 및 우크라이나(2003년부터), 우즈베키스탄(2004), 투르크메니스탄(2005), 아르메니아(2007)에 자회사를 운영 중

<Sistema의 사업부 구조>

사업부	기업명	Sistema 보유 지분
통신사업부	Mobile TeleSystems (MTS)	56.5%
	MGTS	99.0%
	Sistema Shyam TeleServices Ltd.	73.7%
	Sistema Mass-Media	74.9%
석유 및 에너지 사업부	Bashneft	86.3%
	Ufinsk Refinery	88.2%
	Novoil	95.6%
	Ufaneftekhim	88.3%
	Ufaorgsintez	90.2%
	Bashkirnefteproduct	80.6%
	Bashkirenergo	50.4%
	RussNeft	49.0%
하이테크 사업부	Sitronics	71.3%
	RTI Systems	84.6%
	Binnopharm	100%
소비자 사업부	Detsky Mir Center	74.9%
	MBRD	91.3%
	EAST-WEST UNITED BANK	100%
	Dalkombank	100%
	Intourist	66.2%
	Medsi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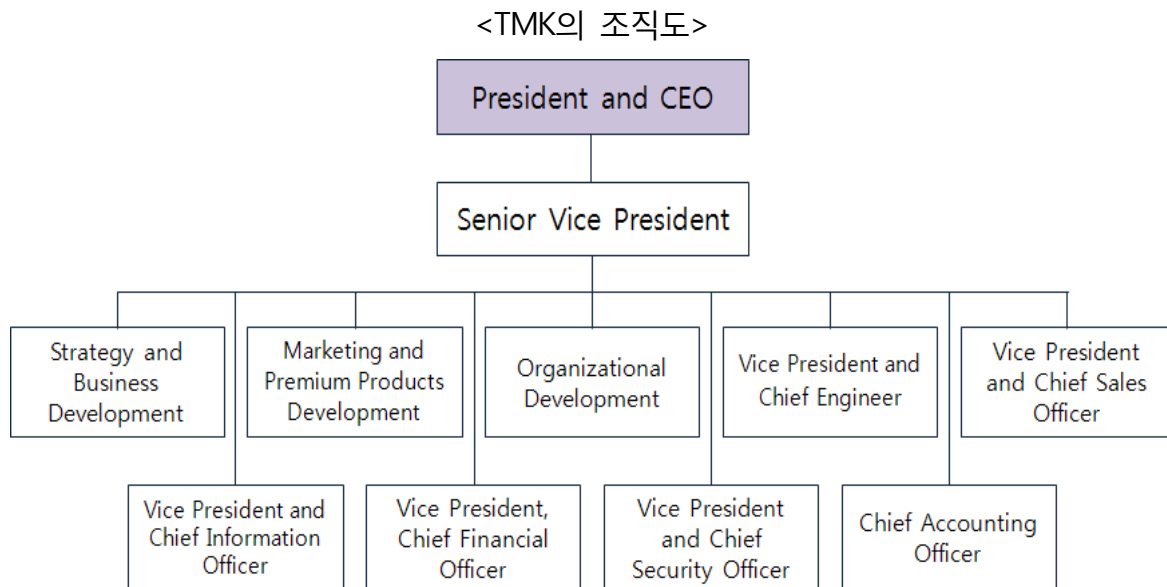
자료: Sistema(<http://www.sistema.com>)

- Sitronics는 2002년 이후 해외투자를 지속하여 2004년 우크라이나에 있는 Kvazar-Micro의 지분 51%와 2006년 그리스의 Intracom Telecom의 지분 51%를 인수하였으며, Sistema는 Shyam Telelink를 인수한 인도에서 이동통신 사

업을 시작

## 12. TMK

- TMK는 파이프를 생산하는 철강회사로 전 세계 철강파이프 시장에서 생산량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러시아 내수 시장에서 27%의 점유율을 기록



자료: TMK(<http://www.tmk-group.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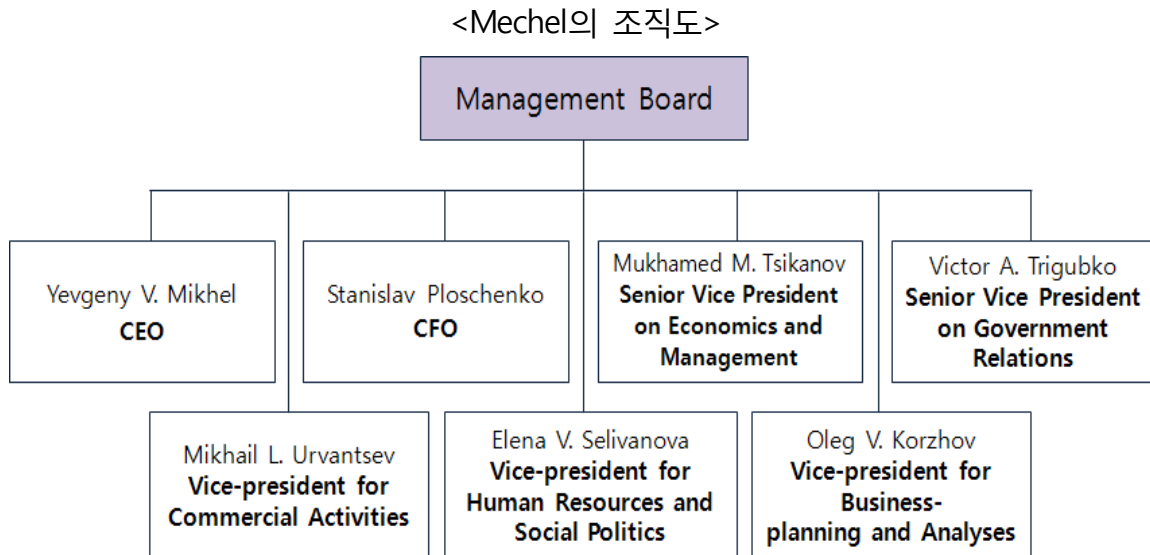
- TMK의 최대주주는 약 75%의 지분을 소유한 최고경영자인 드미트리 품피안스키(Dmitriy Pympanyanskiy)이며, 나머지 주식은 RTS, MICEX, LSE에 상장
- TMK는 2000년대 초 해외투자를 실시한 이후 최근까지 외국기업 인수에 큰 움직임이 없으며, 주요 인수 기업으로는 2008년 미국의 파이프 회사인 IPSCO가 있음

## 13. Mechel

- Mechel은 철, 강철, 압연금속, 철물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석탄과 철광석 및 니켈을 생산하며, 러시아 철강 생산에서 8-10%의 시장점유율을, 점결탄 부문

에서는 20% 이상의 시장을 차지

- 66.76%의 지분을 보유한 CEO 이고르 주진(Igor Zyuzin)에 의해 2000년대 초반 설립되었으며, Mechel의 주식은 NYSE, RTS, MICEX에 상장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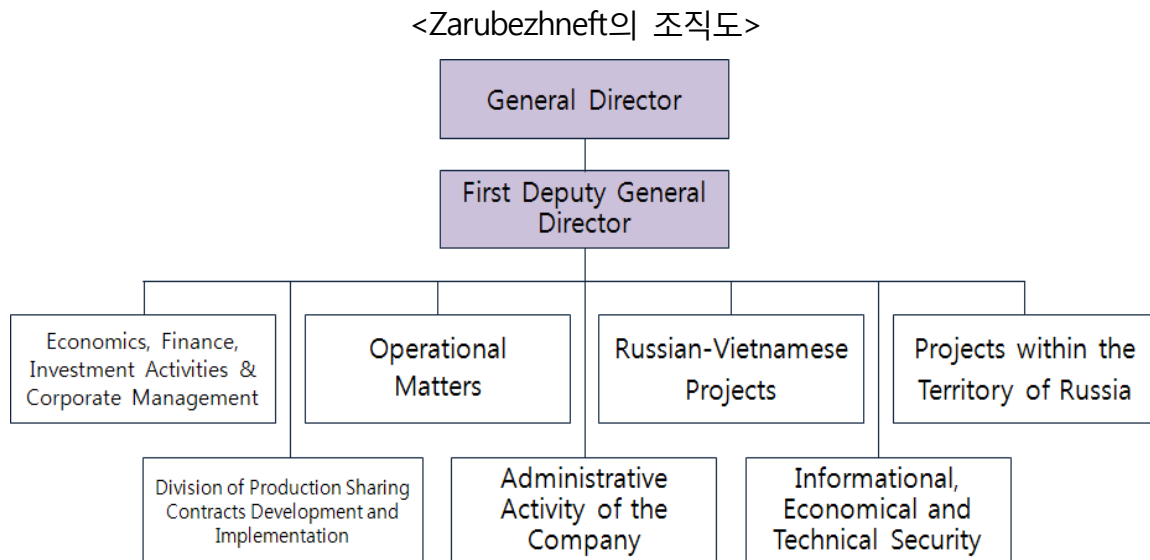
자료: Mechel(<http://www.mechel.com>)

- 러시아 내 핵심 사업시설은 첼야빈스크(Chelyabinsk)에 위치한 제조공장과 케메로보(Kemerovo)에 위치한 탄광시설이며, 사업대상지역은 사하공화국(the Republic of Sakha)에서 카렐리아공화국(the Republic of Karelia)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포괄
- Mechel은 2002년에 첫 해외투자를 시작하였으나 그 범위는 여전히 EU와 CIS 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며, 주요한 해외 기업들은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및 카자흐스탄에 위치

## 14. Zarubezhneft

- 1967년 舊소련 석유산업부 산하에 설립된 Zarubezhneft는 러시아 석유/가스업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기업으로, 다양한 국제투자활동을 수행해왔으며 2004년 정부 100% 지분 소유 주식회사로 변경

- 회사가 설립된 이후로 Zarubezhneft는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등지에서 활발한 투자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알제리, 베트남, 인도, 이라크, 이란, 예멘, 리비아, 시리아, 쿠바 등의 국가에 석유/가스 시설에 쓰이는 설비와 원료의 공급업무를 비롯하여 해외 유전의 탐사 및 개발을 위한 통합프로젝트의 계획과 실행, 유전 시설의 건설, 석유회수 증진을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
- 최근에는 석유사업과 과학 연구 참여를 위한 러시아 자회사를 설립



자료: Zarubezhneft(<http://www.nestro.ru>)

- Zarubezhneft의 대표적 해외투자사례는 1981년에 정부간 협정 하에 베트남의 석유/가스 회사인 Petrovietnam과 50:50 비율로 설립한 Vietsovetropetrol을 들 수 있으며, 2002년 일본의 투자자 설립한 합작회사도 베트남에 위치
- 2001년부터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소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에 있는 두 개의 정제공장과 주유소를 인수하여 설비재건에 들어감

## 15. INTER RAO UES

- INTER RAO UES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력 공급업체로, 1997년 RAO UES Group내에서 폐쇄형 주식회사로 설립
  - 2001년에 러시아 외부에서 생산된 전력을 해외 시장에서 거래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한 INTER RAO UES는 2002년에 러시아에서 전력생산 사업과 생산한 전력을 해외로 수출하는 업무를 시작
  - 2003년에는 회사 주식의 40%를 러시아의 국영 원자력공사(ROSATOM)의 자회사인 Rosenergoatom Concern에 매각하였으며, 그 결과 러시아에서 가장 큰 2개의 전력 생산기업의 수출입 업무를 INTER RAO UES가 통합 담당하게 됨
  - RAO UES의 구조개편을 통해, INTER RAO UES는 RAO UES로부터 분리되었으며, 2008년 3월, 푸틴 대통령은 RAO UES의 지분 60%를 ROSATOM에 이전 승인함으로써 국영기업으로 전환
  - INTER RAO UES는 2003년에 조지아와 아르메니아에서의 확장과 함께 해외의 전력 자산을 활발히 매수하기 시작, 2004년 INTER RAO UES의 자회사인 상사는 핀란드에서 주요한 사업체 중에 하나로 성장
  - 2005년에 INTER RAO UES는 몰도바와 카자흐스탄의 발전소에 대한 통제권을 얻었고, 타지키스탄에 발전소를 건설에 착수하였고, 터키에서의 사업도 시작하였으며 2007년에는 리투아니아의 전기 공급 업체를 인수

## 16. Koks

- Koks는 채탄과 니켈 생산뿐만 아니라 철과 강철 생산에 전문화된 기업으로 Industrial Metallurgical Holding의 핵심 회사로서 2000년대에 설립되었으나 주요 공장은 1924년에 이미 설립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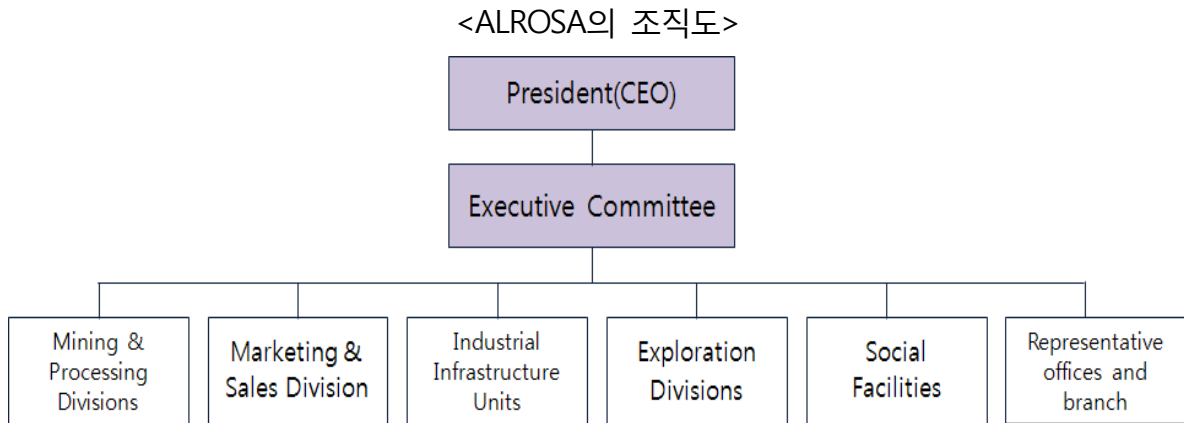
- 회사의 주식은 보리스 주빗스키(Boris Zubitskiy)와 그의 아들이 주식의 93.7%를 보유하고 있으며, 케메로보(Kemerovo)와 툴라(Tula) 지역에 위치한 공장에서 러시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의 주요 생산이 이루어지며 우랄지역에도 일부 시설이 위치
- Koks는 글로벌 외환위기 이전인 2007년에 해외 자산매입을 시작하였으며, 주요 해외 자산은 슬로베니아에 위치한 철강제품 생산 공장임

## 17. Eurochem

- The EuroChem Mineral and Chemical Company(Eurochem)는 러시아에서 최대의 광물질비료 생산업체로, 이 분야에서 세계 top 10 유럽 내 top 3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여러 지역의 물류와 유통 네트워크 업무뿐만 아니라 채굴과 제품가공업 무까지 포괄하고 있는 러시아 유일의 화학 회사로, 주요 공장은 스타브로폴 크라이(Stavropol Krai), 크라스노다르 크라이(Krasnodar Krai), 툴라(Tula), 무르만스크(Murmansk), 상트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g) 지역에 위치
- 러시아 내 질소비료와 인산비료 생산의 선도업체들이 2001년에 MDM Group에 의해 EuroChem으로 합병되었으며, MDM Group 해체 후 안드레이 멜니첸코(Andrey Melnichenko)가 EuroChem의 대주주겸 CEO로 등장
- 현재는 멜니첸코가 9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키프로스의 MCC Holding Ltd.가 EuroChem 주식의 99.99%를 보유
- EuroChem의 최대 해외투자기업은 Lifosa로 2005년에 리투아니아 최대의 인산비료 생산업체 주식의 94.8%를 매입하며 인수하였으며, 해외에 여러 무역회사와 서비스회사도 소유하고 있고, 2008년에는 카자흐스탄의 제조설비업체 지분 56.3%를 인수

## 18. ALROSA

- ALROSA는 다이아몬드 채굴과 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러시아 최대 다이아몬드 채굴 기업이며,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다이아몬드 중 95%의 원석을 채굴
  - ALROSA는 세계 시장에서 2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 정부가 회사의 주요 주주로(주 지역정부가 41%, 연방정부가 50%이상을 소유) 증권거래소 미 상장 기업임



자료: ALROSA(<http://eng.alrosa.ru>)

- ALROSA는 1990년대 중반부터 해외투자를 실시해왔으며, 사하공화국에 생산시설을, 앙골라에 다이아몬드 채굴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다이아몬드 사업 중심지로 유명한 벨기에의 앤트워프에 교역 자회사를 보유

## 19. OM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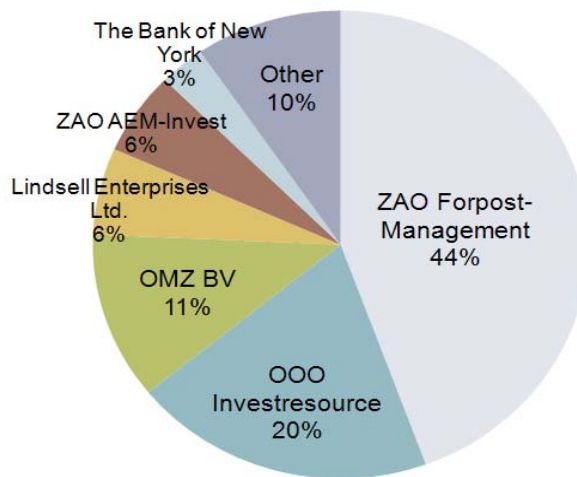
- OMZ(the Uralmash-Izhora Group)는 러시아 최대의 중공업 회사로 원자력, 석유, 가스, 광업 등에 쓰이는 설비 및 기계의 엔지니어링, 생산, 판매, 유지 등을 전문으로 담당하며 기타 산업에 사용되는 장비와 특수 강철도 생산
  - 1996년 우랄 건설기계 공장으로 유명한 예카테린부르크(Yekaterinburg)에서 설



립된 OMZ는 1999년에 Izhorskie Zavody가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OMZ: Objedinennye Mashinostroitelnye Zavody, Uralmash-Izhora Group)로 사명이 변경

- 2006년 말에 OMZ의 설립자인 카카 벤두키즈(Kakha Bendukidze)와 그의 파트너들은 주식의 42.2%를 매각했고, 현재 최대주주는 폐쇄형 주식회사인 Forpost-Management(44.4%)이나 실제 최종 지배기업은 Gazprombank임

<OMG의 지분현황>



자료: OMG(<http://www.omz.ru/e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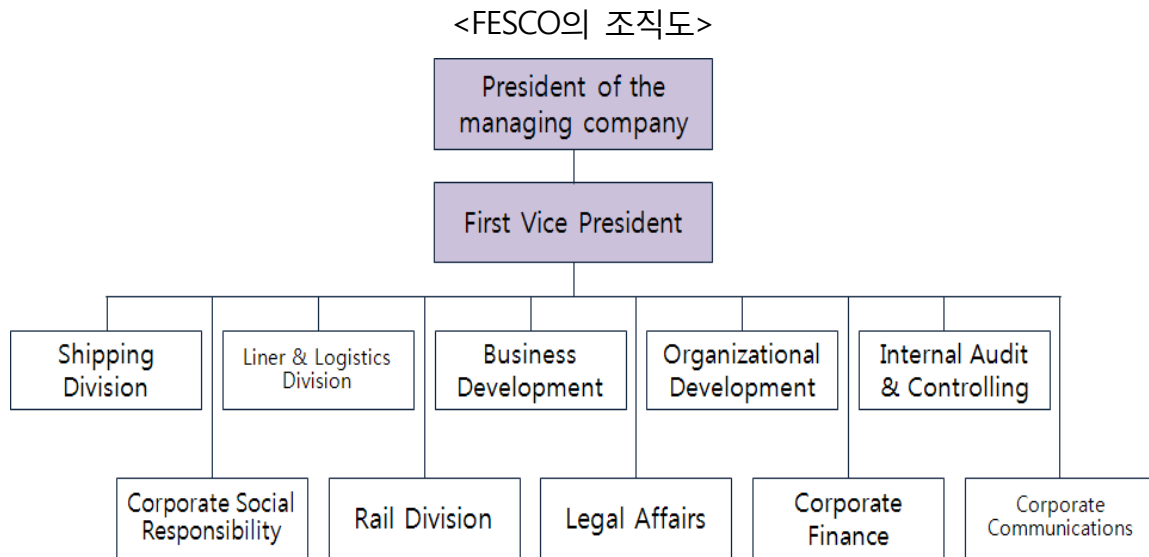
- OMZ는 체코에 유일하게 해외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Skoda Steel과 Skoda JS를 2004년에 인수했고, CHETENG Engineering이 2008년에 OMZ 산하로 편입됨

## 20. FESCO

□ FESCO는 러시아 최대의 민영 복합운송기업으로, 해운, 철도, 내륙운송, 항만서비스 등 광범위한 물류 솔루션을 제공

- 1880년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설립된 Volunteer Fleet Agency("Dobroflot")의 계승회사로서 1935년 창립된 The Far East State Shipping Company(FESSCO)는 1990년대 민영화되었으며, 당시 연료·에너지부 장관이었던 세르게이 게네랄

로프(Sergey Generalov)의 통제 하에 복합 운송 그룹으로 전환



자료: FESCO(<http://www.fesco.ru/en>)

- FESCO의 주요 선박들은 키프로스, 마셜 제도 등 법적으로 선박 규정이 엄격하지 않은 몇몇 국가에 분산되어 등록되어 있으며, 1995년 호주에 첫 해외 지사를 설립
- 이후 FESCO는 1997년 뉴질랜드와 홍콩에 자회사를 설립하였고, 1999년에는 미국과 중국에도 자회사를 설립
- FESCO는 홍콩의 선박도색용 페인트 생산업체의 지분을 49% 소유하고 있으며,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운송기업의 지분도 상당부분 보유

작성자

◆ 투자정보팀      김동희 선임연구원

감수

◆ 투자정보팀      박용수 팀장

외국인투자정책센터자료 11-003

러시아의 해외투자 동향 및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

발행인 | 조환익  
편집인 | 안홍철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11년 6월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